

공공신학적 성경통독 방법론 연구
: 태국 기독교단 베들레헴 시찰교회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신주용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5년 5월

Copyright © 2025 Jooyong Shin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OLOGY OF READING THE BIBLE THROUGH IN PUBLIC THEOLOGY : A CASE STUDY OF BETHLEHEM PROVINCIAL COUNCIL IN THAILAND

Jooyong Shin

Chang Mai, Thailand

To achieve this, this study examined the practice of “common good” and the “Tong (通) Bible” as essential tools for helping Karen churches within the Bethlehem Provincial council with the outside world. The “Tong (通) Bible”, developed by Cho Byung-ho, present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Bible through an integrated reading method. This approach is particularly necessary for pastors in the Bethlehem Provincial council, who have traditionally read and preached the Bible in isolated sections rather than as a unified whole. By introducing the “Tong (通) Bible”, this study aims to demonstrate that an integrated approach to the Scriptures is the most effective method for pastors to communicate the Bible to their congregations.

Over the past five years, I have traveled to five churches within the Bethlehem Provincial council, delivering itinerant sermons. In the first five years, I attempted to

teach and study the entire Bible together with the Pwo karen church members, but these efforts were unsuccessful, leading to continuous challenges and struggles. However, over the past year, seminars and worship services incorporating the “Tong (通) Bible” have significantly influenced pastors and believers in their understanding of the Scriptures. Additionally, the churches have begun to shift their focus beyond their immediate communities, taking the first steps toward engaging with the broader society.

Through this study, I hope that starting with these five churches in the Bethlehem Provincial council, churches will recover their public role and live according to the teachings of the Bible.

국문초록

공공신학적 성경통독 방법론 연구

: 태국 기독교단 베들레헴 시찰교회 중심으로

신 주 용

매사리앙, 베들레헴 시찰, 태국

본 연구는 태국 북부 지역에 대한 목회 전략 탐구이다. 태국은 불교 국가이다. 모든 문화에 있어서 불교를 제하면 태국문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 국가라는 나라의 타이틀에도 신기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인정한 국가이기도 하다. 196년의 개신교 선교역사를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독교의 인구는 1%(천주교 포함)가 되지 못한다. 또한 태국 교회는 공공권에서의 공헌이 부족하다. 태국 기독교단의 관심사는 그리스도인의 증가이며 교회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 정립과 함께 태국 사회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공적 교회의 역할이 없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기독교 1%의 상당수가 북부에 위치한 소수민족 교회가 차지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교회 자립이 되어지고 목회적인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연구와 읽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교회 교역자가 정규신학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체계적인 성경공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고립되어있는 베들레헴 시찰에 속한 카렌 교회들이 소수민족 마을인 자신들의 마을과 교회를 넘어 세상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그리

스도인 이라는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고 성경을 연구하여 성경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전파하며 이웃과 살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베들레헴 시찰에 속한 카렌 교회가 세상 밖으로 가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선의 실천과 ‘통(通)’을 기반으로 한 ‘통(通) 성경’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통(通) 성경’은 조병호가 만든 것으로 베들레헴 시찰 소속 목회자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성경에 대한 이해를 ‘통(通)’이라는 ‘성경 통독’의 방법을 제시하여 부분으로만 읽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에게 ‘통(通)’의 방법이 속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최고의 방법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인은 지난 5년간 베들레헴 시찰에 속한 5개의 교회를 다니며 순회 설교를 하였다. 과거 5년간은 성경의 전체를 함께 공부하며 이해를 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실패하였고 늘 마음이 어렵고 힘듦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통(通)’ 성경을 통한 세미나와 예배는 목회자와 교인들의 성경을 깨달아 아는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확인하게 되었으며 교회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가 우선이 아닌 소속된 사회로 나가기 위한 행동의 시작함을 함께 보게되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베들레헴 시찰에 속한 5개의 교회를 시작으로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며 성경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목차

감사의 글	xi
표 목차	ix
사진 목차	x
I.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B.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3
II. 공공신학의 이해	5
A. 공공신학의 신학적 근거와 정의	5
B. 세상안 교회의 공공성	7
C. 성서 안에서의 공공신학	10
III. 태국 기독교단 이해	11
A. 태국 기독교 역사	11
B. 태국 기독교단의 배경	20
C. 포 카렌족 배경	31
D. 베들레헴 시찰회 역사적 연구	34
IV. 성경통독의 이해	43
A. 성경통독의 성서적 배경	43
B. 성경통독의 역사적 배경	45
C. 성경통독의 요소	46
D. 베들레헴 시찰 5 개교회 안에서의 성경통독	48

V.	베들레헴 시찰교회에 필요한 성경통독 방법론과 공공신학	52
	A. 베들레헴 시찰 5 개 교회	52
	B. 베들레헴 시찰과 공공신학	66
	C. 5 개 교회에 필요한 성경통독 방법론	68
VI.	결론 및 제언	72
	참고문헌	75

표 목차

<표1>태국기독교단 2022-2024년 총회책자 교회증감 보고.....	26
<표2>태국기독교단 2022-2024년 총회책자 목회자 보고.....	27
<표3>태국기독교단 2022-2024년 총회책자 교인증감 보고.....	29
<표4>태국기독교단 2022-2024년 총회책자 전도자증감 보고.....	31
<표5>조슈아 프로젝트.....	33
<표6>베들레헴 시찰회에 속한 어머니 교회.....	35
<표7>베들레헴 시찰 교회 분포.....	38

사진 목차

<사진1> 호웨이 무 따이 교회 아피쉴 전도사와 성경통독 인도.....	55
<사진2> 호웨이 무 따이 교회 전경.....	56
<사진3> 꺄뻤따이 교회 전경.....	58
<사진4> 꺄뻤따이 교회 성경통독.....	59
<사진5> 꺄뻤느아 교회 전경.....	59
<사진6> 매라이 반 마이 교회.....	62
<사진7> 매라이 반 마이 교회 목회자.....	63
<사진8> 파안전도처 교인들과의 성경통독 후 기도모임.....	64
<사진9> 파안전도처 교회건축부지.....	65

감사의 글

DREW 라는 울타리에서 태국의 사역을 학문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아내이자 세 아이의 든든한 엄마로 선교사로 늘 함께 해준 김진희 선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희 가정이 태국선교사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마음으로 후원하여 주신 교회와 기업, 동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0 년부터 지금까지 태국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있는 저희 가정의 기도 공동체인 ‘큰기쁨교회’와 목양일념의 삶을 실천하고 계신 김석환 담임목사님, 부족한 제자를 늘 응원해 주시는 한남대학교 천사무엘, 조용훈 교수님, 뉴욕 아름다운교회 계재광 목사님, 신일교회 배요한 목사님, 장로회신학대학교 최영근 교수님과 총회파송 태국 선교사이신 조준형, 이명화 선교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태국 선교현장에서 주 안에서 하나된 태국기독교단(CCT) 19 노회 카렌 공동체분들과(베들레헴 시찰), 14 노회 한센노회 공동체분들, 시동옌 리수족 어린이 센터의 소중한 아이들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한국 누가회(CMF 태국선교부)와 태국 누가회(CMF Thai)의 지체들 그리고, 서있을땐 몰랐지만, 무릎으로 바라볼때 환한 웃음으로 부족한 선교사를 마을 밖에서부터 기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셨고 또한 부족한 선교사의 가정을 한센 공동체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음성한센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3년간 학업과 논문,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도해주신 조병호 교수님과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자의 논문을 위하여 함께 고민해 주시며 조언을 아끼지 않고 도움을 주신 김영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들의 비전이라 믿고 살아가고 있는 하늘에서 직접 보내주신 사랑하는 큰딸 예은이와 꿈을 위해 다듬어지고 있는 멋진 보석 둘째 요한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에서 가장 예쁜 막내 온유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25년 5월

신 주 용

제 I 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태국은 뿌리깊은 불교의 영향아래 있는 국가이다. 뿌리깊은 불교의 문화와 국민성이 불교의 나라임을 말해주고 있지만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¹ 또한 서구의 식민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을 유지해온 국가이기도 하다. 이렇듯 기독교에 관대한 불교 나라이지만 교회가 공공성을 통하여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 미비한 상황이며 성경을 통한 배움과 행동이 약한 상황이다.

본인은 태국 선교사로 태국기독교단(CCT) 19 노회와 TKBC 에 속한 포 카렌족(Pwo Karen)²이 주류인 베들레헴 시찰에서 협력 목회를 진행중에 있다. 태국 북부에는 수 많은 소수 민족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 풍습을 유지하며 태국인이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태국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이기에 다른 국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문화 가운데 포 카렌족(Pwo Karen)은 그들만의 독특한 기독교 역사를 간직하며 교회를 이루고 목회자를 선출하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교회의 자립성이 강하며 교회에서

¹ 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 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๕๖๐(태국 헌법)

제 31 조 개인은 종교를 믿는 데에 있어서 마땅히 완전한 자유가 있으며, 마땅히 본인의 종교 원칙에 따라 종교의식을 이행 또는 거행할 자유가 있으나, 태국 국민의 의무에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아니하여 하며, 국민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² 동부의 포 카렌족은 태국 서부와 미얀마의 카인 주(Kayin State) 에 살고, 서부의 포 카렌족은 미얀마의 에야워디 도(Ayeyarwady Region)에 산다.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며 목회자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성도들의 심방 그리고 복음전도를 위한 삶을 살아주길 바란다. 하지만, 대부분 정규 신학교육을 받은 상황이 아니기에 성경에 대한 깨달음과 깊은 묵상 및 연구가 없기때문에 성도들은 성경 자체에서 나오는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지 못한다.

본인은 지난 6년간 포 카렌(Pwo Karen) 교회 5 곳을 방문하며 협력 목회를 하고있다. 1 세대 교회가 30-40 여년전 대나무와 나무로 건축이 되어 지어지고 난 후 2 세대 교회 역시 흰개미의 번식과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나무로 지어진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에 처한 곳을 보았다. 현지 교회는 이를 위한 건축 헌금을 모으기 시작하였지만 코로나 이후 태국의 국가 봉쇄에 농업을 생활의 수단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물류 차량이 마을이 속해있는 읍과 군 단위로 운송을 할 수 없음에 자급자족의 삶으로 생명을 이어 나가야 했다. 이로 인하여 교회 역시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고 교회 건축 역시 교회가 자립적으로 할 수 없었기에 코로나 엔데믹 선포이후에 선교사에게 요청을 하게 되었고 건축을 위한 성도들의 노동의 십일조로, 모아둔 재정으로, 한국교회의 부분적인 도움으로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사에게 100%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50%정도를 정성껏 준비하여 부족한 부분을 선교사에게 요청을 한다. 후에 이들은 건축비를 절약하며 자신들의 손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하는 마음으로 구역별로 나누어 교회 건축현장에서 건축을 돕는다. 이 일은 남, 녀의 구분이 없으며 각자 자신들이 할 수 있고 계획한대로 실행 하고 있다.

베들레헴 시찰회에 속한 5 교회를 순회설교 하며, 각 교회의 목회자들의 설교와 성도들의 셀 모임을 보아오면서 체계적인 성경연구와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 과거 수십년에 걸쳐 오면서 이들에겐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 즐거움 대신 목회자의 설교와, 교회의 봉사 및 노동으로

인하여 코이노니아만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또한 카렌의 형제 자매들과의 이동 및 문화적인 교류는 있었지만 태국 시민권 자로서 소도시와 대도시에서 살고있는 태국인들과의 교류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이러한 미흡의 원인에는 언어적인 문제, 결혼 풍습(조혼)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읍, 군, 시 단위의 행정 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교회가 밖으로 나가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립적인 교회 문화를 고집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본인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여

1. 베들레헴 시찰회에 소속된 5 교회가 필요한 공동선을 제시한다.
2. '통(通)'을 기반으로한 '통(通) 성경통독'이 베들레헴 시찰에 속한 5 개의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방법임을 제시한다.
3. 본인이 '통(通)'을 기반으로한 '통(通) 성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본 연구는 태국 북부 지역에서도 매사리앙군(Maesariang) 솜머이(Submoei)읍에 속한 5 개교회 지역에 한정된다. 이 지역은 본인이 지난 5 년간 협력하여 건축한 교회이다.

포 카렌(Pwo Karen)은 문화와 풍습, 종교에 대한 자료들이 문헌보다는 구전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기에 교차문화권 선교사인 본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한국어로

쓰여진 ‘통(通)’ 성경을 한국인 선교사가 사용한 언어인 태국어와 포 카렌어로의 이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제 II 장

공공신학의 이해

공공신학의 신학적 근거와 정의

신학은 이론적이며 현실적이어야 한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경험에서 나오는 인간의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신학의 모든 내용들은 성경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수 천년 전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을 어떻게 오늘 태국의 현실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 할 수 있고 포 카렌(Pwo Karen)의 교회가 자신들의 공동체만 우선이 아닌 태국의 사회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과 공공신학의 조화라 믿는다. 공공신학이 적용이 되어지고 실천되어야 할 부분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사회라는 공간이다.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신학이 아닌 세속화와 민주주의 혹은 다원주의라는 시대적 조건에 적응하면서 탄생한 학문이다.³ 현대적 개념의 공공신학은 마틴 마티(Martin Marty)라는 학자가 1970 년대에 처음 소개하였다.⁴ 공공신학은 교회의 관점에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참여와 기여에 더 관심을 두고있다.

³ 최경환, *공공신학의 눈으로 본 성경* (서울: 지우, 2023), 12.

⁴ 김창환, *공공신학과 교회* (서울: 기독교서회, 2021), 20.

송영목은 ‘공공신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공신학은 교회당을 넘어서는 복음의 공적 차원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의 제반 영역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신학적인 시도로서, 비기독교 전통이나 자연-사회-역사과학 등과 더불어 비판적 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공신학은 개인의 실존이나 신앙의 초월성을 강조하다가 발생하는 ‘세상에서 도피하는 경건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며, 나아가 기독교의 구원이 본래부터 영적이지 공공적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일깨워서 천국, 정의, 평화를 소망하게 만들어 세상을 변혁하려 한다.⁵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셨다.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이웃으로서, 때로는 선생과 친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자신들과 똑같은 한 유대인으로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싸움꾼으로서 정의와 자비를 베푸신 증거들이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셨다. 타인의 형편을 돌보고 많은 이들과 함께 유익을 나누고, 불의를 보며 참지 못하시는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이다. 이러한 주제들이 바로 공공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신학은 과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시대가 말하고 교회에, 그리스도인에게 요청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신학이다.

우리는 그동안 반드시 선은 보상을 받고 악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응보적 정의론만을 유일한 정의로 생각해왔다. 어릴 때부터 그것이 정의라고 배워왔기 때문이다.⁶ 최경환의 주장은 소승불교 문화권인 태국 사람들의 생각과 같다. 자신은 덕을 쌓아야 하고 남을 위한 선은 칭송을 받으며 선이 쌓여져 하늘에 닿으면 다시 인간으로 환생을 하거나 부모가 극락왕생을 한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⁵ 송영목, *하나님 나라 복음과 교회의 공공성* (서울: SFC, 2020), 14.

⁶ 최경환, *공공신학의 눈으로 본 성경* (서울: 지우, 2023), 160.

이웃을 돕는 것을 최고의 미덕 말하고 실천하지만 이웃을 위한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다.

세상안 교회의 공공성

태국의 역사와 문화에 있어서 불교사원은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태어나 불교 사찰에 있는 승려를 찾아가 정성껏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예불을 드리고 삶의 마지막은 불교사원에서 온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장례(화장)를 한다. 태국인에게 있어서 불교사원은 그들이 살고 있는 작은 세상의 안이며 과거로부터 불교사원은 이들에게 공공성(Publicity)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였고, 좋은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서로 배우는 교훈들이 불교의 사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불교를 믿지 않는 신앙인들도 자연스럽게 불교사원이 주는 공공성이 당연한 것으로 이해를 하며 교회는 이러한 공공성을 제공하지 않아도, 삶의 영역에 교회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

송명옥은 세상속의 공공적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은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 속에 산다. 따라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기에 교회가 공공성을 확보하여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는 역동적이고 유기체적 공동체로서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기 위해 전력을 생산하는 ‘전기발전소’와 같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활동하는 성도 개인은 충전되어 전력을 세상에 내보내는 ‘전선들 cables’과 같다. 세상속의 공공적 교회는 세상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⁷

⁷ 송명옥, *하나님 나라 복음과 교회의 공공성* (서울: SFC, 2020), 119.

우리는 교회가 공공성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과 기독교 국가에서는 당연히 생각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본인이 관계를 맺고 있는 태국 사회에서는 소승불교의 문화를 넘을 수 있는 공공성을 뛰어넘는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공공성은 불교의 문화에서도 실천을 할 수 있지만 기독교가 주장하는 공동선은 전체와 개인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는 개념이다. 공동선은 개인들이 서로의 유익을 소중히 여기며 전체의 유익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포함된다.⁸

태국의 소승불교가 전하고 있는 공공성은 관계의 회복이 아닌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고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받아 위로 감사를 드리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 교회는 이러한 공공성을 행하면 오해의 여지가 충분히 만들어 질 수 있다. 공동선은 하나님, 나, 이웃이 하나로 이어진다. 각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들 사이에도 풍성한 관계가 제대로 만들어 질 수 있으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두 완성되어질 수 있는 영적인 공동선과 사회적인 공동선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성경에 있다. 세상의 학문이나 정치나 경제나 교육으로는 공공성을 이룰 수 있지만 공동선을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최고의 공동선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공동선을 신학적으로 처음 정의한 초대 교부는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Johannes Chrysostomus)였다. 그는 “기독교의 가장 완벽한 규칙, 가장 정확한 정의, 최고점은 바로 공동선의 추구다. 왜냐하면 이웃을 돌보는 것만큼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없기 때문”⁹ 이라고

⁸ 송용원, *하나님의 공동선* (서울: 성서유니온, 2021), 29.

⁹ 송용원, “프로테스탄트 공동선을 찾아서”, (장신논단 Vol. 49 No. 1, 2017), 45.

선언했다. 또한 아퀴나스는 중세 공동선 사상을 담은 <신학대전>과 <이교도대전>에서 “선함이 한 도시 뿐 아니라 한 개인을 위해서도 같은 것이지만, 도시를 위해 선함을 획득하고 보존하는 것이 더욱 위대하고 완전하다”는 공동선의 수위성을 강조했다. “모든 것들의 선함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기에 최고의 하나님 자신이 바로 공동선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는 하나님의 사회적 공동체적 성품에 대한 근원적 선언이다.¹⁰

공동선의 기초는 성경이다. 성경말씀에 나와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의 약함과 착함 주변성을 흠모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따르는 신실하고 개인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 사회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지상 최대의 과제인양 부르짖기보다, 자유와 평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서 구현되게 하는 십자가의 길, 즉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다.¹¹

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당연한 일을 잊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성경안에 있는 예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다. 세상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잊었기에 세상안에서 공공성을 이야기한다. 공동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공동선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 공동선을 펼쳐 가셨다. 인간의 본성이 워낙 자기중심적 이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을 반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동선의 완벽한 모델로 이스라엘 역사를 수렴하게 하셨다.¹²

¹⁰ Ibid., 47

¹¹ 송용원, *하나님의 공동선* (서울: 성서유니온, 2021), 55.

¹² Ibid., 70-71

본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역사가 적혀 있는 성경만이 태국 교회와 베들레헴 시찰회 5개 교회가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도움의 돌이라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선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며 실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서 안에서의 공공신학

어떠한 신학이든 교회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기 위해선 성경적인 근거와 토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¹³

성서에서는 공공신학이 추구해야 할 행동강령이 적혀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각 지역을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병고침을 행하시며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에 각기 다른 주제를 통하여 이들과 함께 교감을 하셨다. 예수님은 앎과 행함 그리고 행함 이후에 맛보게 될 열매들 역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타인의 삶을 살피며 함께 돌아보는 일, 자신만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방법을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성서에 기록해 놓으셨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공공신학임을 알게된다.

¹³ 최경환, *공공신학의 눈으로 본 성경* (서울:도서출판 지우, 2023), 12.

제 III 장

태국 기독교단 이해

태국 기독교 역사

카톨릭 선교 시대

태국 복음의 시작은 1511년 포르투갈의 사절단과 동행 했던 카톨릭 신부에 의해서였으며, 태국에서 기독교가 포교 활동을 한 것은 개신교보다 273년 앞선 155년 아유타야 왕국시대에 들어온 두 명의 도미니칸 신부에 의해서였고 이 두 사람은 1556년, 1569년에 순교를 당했다.¹⁴

1585년 스페인 사람들도 태국에 그들의 선교사를 보내고자 하여, 그 후 15년 뒤에 돈 텔로(Don Tello de Aguirre)가 친선 및 무역 사절로 필리핀의 마닐라로부터 왔다. 17세기 후반까지 동양에서 활동한 거의 모든 카톨릭 선교사들은 포르투갈의 통제를 받았다. 당시 대부분의 카톨릭 선교사들은 포르투갈, 스페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주로 로올라가 창시한 예수회(Jesuits)에 속한 사람들이었다.¹⁵

¹⁴ 최승근, “태국에서의 동반자 선교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46.

¹⁵ 김종명, “태국 교회(선교)역사 인식을 토대로한 사역전략 수립의 방향 모색,” GP 선교부 발표글, 2009, 9.

카톨릭 선교사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린 것은 1664년 나라이왕(King Narai)이 프랑스와 국교를 맺고 선교활동을 허락하면서부터였다. 나라이왕(King Narai)은 카톨릭 선교사들에게 선교관을 지어 주기도 하고, 중요한 일들을 상의하기도 하고, 사전과 문법책을 출판하도록 하는 등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주었다. 나라이왕(King Narai)의 이러한 포용적인 태도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서구의 문화를 도입하고자 이용하는 것이었고 더 깊은 의미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교를 더 원숙하게 하기 위해서였다.¹⁶ 이 당시 카톨릭의 선교정책은 정치구조와 상류층의 개종을 통하여 일반 평민들에게 쉽게 전파하려는 정책이었다. 그래서 당시의 카톨릭 서구의 발달된 문명을 매개로 왕실과 접촉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과는 대조적으로 일반 대중들은 매우 반항적이기에 두 명의 신부를 살해하였다.¹⁷

1688년 선교사들에게 호의적이었던 나라이왕(King Narai)이 죽자, 태국왕실 외교담당 장관이었던 영국인 콘스탄틴 폴콘(Constantin Phaul Kon)이 황실에 대한 위협 혐의로 체포되어 처형되고 이를 계기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모든 카톨릭 선교사와 모든 외국의 군인들이 태국에서 추방이 되었고 현지 카톨릭 신자들은 옥에 갇히게 되었거나 죽임을 당했고 이후 카톨릭 선교는 140년간 태국에 들어올 수 없었다.¹⁸ 초기의 카톨릭 선교는 일반대중을 무시하고 귀족과 왕실중심의 선교정책을 하였고 당시 열강들의 이권 획득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면서 진정한 선교의 기초를 다지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

¹⁶ 김순일, *한국 선교사의 가는 길* (서울:성광문화사 1980), 319.

¹⁷ Alex G. Smith, *Strategy to Multiply Rural Churches*, 9.

¹⁸ 김순일, *한국 선교사의 가는 길*, 318.

개신교 선교의 시작(1816~1862)

개신교에 의한 역사는 1816 년부터 시작이 된다. 미얀마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Adoniram Judson)의 부인 앤 저드슨(Ann Hasseltine Judson) 선교사가 처음으로 싸이암¹⁹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1820 년대에는 런던선교회에서 태국인들을 위한 선교가 거론되기 시작하였고 서구 선교단체들이 싸이암 선교에 관심을 둔 것은 중국선교의 전략적인 가치 때문이었다.²⁰

짜크리(Chakri)왕조시대 제 4 대왕 몽kut(Monkut)왕 때가 되어서 본격적인 개신교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 이유는 태국이 다신 외국에 대한 개방정책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140 년간 닫혀있던 정책이 풀리며 1820 년대에 중국에서 사역하던 칼 구츨라프(Carl F. Gutzlaff)와 야곱 톰린(Jacop Tomlin)이 1828 년 3 월 13 일 개신교 선교사 최초로 싸이암 왕국 방콕에 들어와 선교사역을 하였다.²¹ 이들은 방콕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일하도록 허락을 받았지만 외국인을 보기 위하여 몰려드는 현지인들을 상대로도 복음을 전파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에도 결과는 미비하였는데 그 이유는 140 년이 지났지만 카톨릭 선교의 영향력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며 서양인들에 의하여 손상된 태국인들의 민족감정이 남아있었고 18 세기에는 미얀마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더욱 강력한 민족주의가 불교를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이었다.²²

¹⁹ Thailand 의 이전 국호, SIAM.

²⁰ 김종명, “태국교회(선교)역사 인식을 토대로한 사역전략 수립의 방향 모색”, 10.

²¹ 김순일, *한국 선교사의 가는 길*, 39.

²² 최창성, “타이정치에 미친 불교의 영향”, (석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 대학) 1975, 15.

본격적인 선교는 목사이며 의사이며 행정가였던 브래들리(Aan B. Bradley)가 입국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브래들리는 서구의 과학기술, 의술을 소개하며 친분을 갖고 선교를 준비하였고 쯔라롱껀(Chulongkoern)왕의 영어교사가 되어 쯔라롱껀(Chulongkoern)왕이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는데 크게 공헌을 하였다.

이 시대에는 싸이암 정부와 태국의 국민들은 개신교 선교사들에게 배타적이지아닌 우호적이었으며 선교사들에게 필요했던 행정적인 면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었다. 또한 이들은 선교사들의 선교사역과 교육, 의료사역을 격려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선교의 결과는 큰 성과가 없었다. 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는 존 테일러 조운즈(John Taylor Jones)와 그의 아내에 의해 세워졌는데, 그들은 버마(미얀마)에서 사역하다가 1833년 3월 25일에 방콕에 도착하였다. 짜오프라야강 주변의 버마인들의 마을을 방문하여 사역하였고 싸이암어 신약성경을 개역함으로써 싸이암 선교에 크게 기여하였다. 1837년 7명의 수세자 중 충실하게 남은 3명의 신자와 8명의 선교사가 아시아 최초로 중국인 교회를 설립했는데 이 중국인 교회가 현재 방콕에 있는 마이뜨리췌 교회(Maitrichit Church)이다.

이 시기 개신교 선교사들은 선교사들의 철저한 경건과 사랑으로 복음전파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에 주력하였다. 선교사들은 당장의 선교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다짐했다.²³

개신교 선교의 발전(1863-1940)

²³ 최승근 “태국에서의 동반자 선교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50

이 시기는 방콕, 북부 태국, 남부 태국의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이다. 방콕은 싸이암 선교보다는 방콕에 살고있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가 이루어졌다. 태국인 선교보다는 방콕에 살고있는 중국인 선교가 활발했다.²⁴

북부지역은 소수민족 선교가 이루어졌다. 북부 산악지역에 거주하는 카렌족(Karen)은 산지에 거주하는 관계로 태국의 선교사들보다 미얀마의 선교사들이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 본격적인 선교는 미얀마의 카렌족 기독교인들에 의해서였는데 무앙 웨(Muang Hew)의 여러 지역에서 4 명의 신자는 북부 태국의 산 속 깊은 곳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전도를 하였다.²⁵

카렌족과 버금가는 라오족의 선교는 북부 태국 선교의 아버지인 다니엘 맥길버리(D. McGilvary)와 윌슨(J. Wilson)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1863 년 11 월 두 선교사는 500 마일 거리를 짜오프라야 강을 따라, 그리고 육로이동을 포함하여 45 일간의 여행으로 북부 치앙마이에 도착하였다. 1864 년 방콕으로 돌아와서 뉴욕선교회의 인정과 허가를 받고 다시 가족을 데리고 돌아왔다. 맥길버리(D. McGilvary) 는 의료선교와 구제선교를 베풀며 독자적인 순회 선교로써 선교 사역을 하였다.²⁶

맥길버리(D. McGilvary) 선교사는 교회를 설립하고 북부 지역 전도여행을 다닐때 이동수단으로 코끼리와 말을 이용하여 북부 산지 수 천 마일 여행을 하였고 이 당시 수 천 명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된 계기가 되었다. 맥길버리(D. McGilvary) 일행이 그들의 선교사역을 시작함으로 기독교 복음은 태국 북부

²⁴ Alex G. Smith, *Strategy to Multiply Rural Churches*, 43

²⁵ Idid, 47.

²⁶ 최승근 “태국에서의 동반자 선교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52

대부분의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정글 지역에도 예배 처소를 위한 교회들을 건축하였고 몇몇 곳은 집단회심이 일어나기도 했다. 맥길버리(D. McGilvary)는 선교를 위하여 현지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고 정치 지도자들과도 관계를 갖고 있어서 선교에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이후 1878년 쉘라롱겐(Chulongkoern)왕이 ‘종교관용의 칙령(The Proclamation of King Chulongkoern’ s Edict Religious Toleration)’을 선포하게 된다.

태국 남부는 북부지역과는 확연히 달랐다. 북부는 선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에 의하여 매우 빠르게 교회가 성장하는 반면에 남부의 선교사들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광야 같은 영적 황무지에서 많은 갈등을 겪어야 했다.

남부 지역 선교는 사회, 정치, 종교 문제와 맞물려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의 통계에 의하면 과거로부터 태국 남부는 기독교 교세(교인수, 교회수, 목회자수, 개종자의 수)가 태국 전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교세 확장이 활발한 북부와 중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883년 남부의 기독교의 총 교인수는 476명이었다. 남부는 선교사들이 1850년과 1880년 사이에 태국에 입국을 하였다.²⁷

남부 개신교 선교는 1900년 미국 장로 교회가 나콘시타마랏주(จังหวัดนครศรีธรรมราช)에 선교센터를 세우며 시작하였다. 그 선교센터가 남부 선교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1910년에 주변 도시인 프랑주(จังหวัดตรัง)에 선교센터를 세워 사역 지역을 확대하게 되었다. 그 후 태국 교단인 CCT가 나콘시타마랏주(จังหวัดนครศรีธรรมราช)를 중심으로 9노회를 세우고, 서쪽 지역인 프랑주(จังหวัดตรัง)를 중심으로 17노회, 북쪽 수랏타니주(จังหวัดสุราษฎร์ธานี)부터 방콕과 인접해있는

²⁷ Alex G. Smith, *Strategy to multiply Rural Churches*, 117

페차부리주(จังหวัดเพชรบุรี)까지 통합하여 8 노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남부 최남단 4 개주(나라티왓, 팻따니, 알라, 싸똌)의 복음전파를 위해 알라주(จังหวัดยะลา)에 12 노회를 세웠다.²⁸

1884 년 이후 1910 년까지 급성장을 이루었지만 이후 30 년간 정체와 시기를 보내게된다. 그 이유는 1914 년-1918 년 1 차 세계대전과 1901 년 10 월 기독교에 옹호적이었던 쾄라롱겐(Chulongkoern)왕의 죽음으로 인한 정치적 급변과 초기 선교사들의 죽음이 선교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선교부가 개인 신앙의 양육과 보살핌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인이다. 이 시기에는 구제, 의료, 교육선교가 주요 정책이었다.²⁹ 선교부는 구제와 교육에 힘을 기울이다가 신자를 양육하고 보살피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선교의 침체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현재까지 태국 교회는 교회수에 비하여 목회자의 수가 부족하게 되었고 힘든 목회보다는 병원과 교단 및 기관에서의 일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 시기 교회는 급격하게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었다. 맥길버리(D. McGilvary) 선교사에 의하여 북부 교회가 성장하였지만 반면에 남부 교회는 북부와는 다르게 천천히 성장을 하였다. 북부는 1883 년 364 명의 세례교인이 1914 년 6934 명으로 성장을 하였고 남부는 1884 년에 152 명이었던 신자들이 1915 년 1002 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³⁰

²⁸ 김동학, “남태(남부 태국) 한국 선교사의 선교 역사와 전망,” 2004, accessed November, 23, 2020, 1<http://www.missionthailand.net/themissionthailand/thaimission11.htm>.

²⁹ Alex G. Smith, *Strategy to Multiply Rural Churches*, 155-157.

³⁰ Ibid, 117.

북부가 성장하게 된 이유는 맥길버리(D. McGilvary) 선교사가 전도를 실시하고 세례를 준 후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부를 설치하였기 때문이었고 이로 인하여 많은 현지 사역자들과 선교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1917년에는 5가정의 선교사가 추가로 협력하게 되었다.³¹ 1868년에는 조나단 윌슨(Jonathan Wilson)이 합류하게 되었고 1868년 8월 북부 태국에서는 처음으로 난 인타(Nan Inta)가 신자가 되었다. 그 당시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자가 되었는데 방콕에서 20년 사역하여 얻은 열매보다 더 많은 열매를 2년 내에 북부에서 거둘 수 있었다.³²

이후 기독교 선교의 전초기지는 1885년 람팡(Lampang), 1891년 람퐁(Lamphun), 1893년 프래(Prae), 1895년 난(Nan), 그리고 1897년 치앙라이(Chiang rai)와 1898년 핏사눌록(Pitsanulok)에서 만들어지게 되었고 1904-1908년 미얀마의 켕퉁(Keng Tung)과 1914-1917년에 중국의 징홍(Jing Hong)에도 설립이 되었다.³³ 위에 언급된 지역의 선교센터는 후에 태국 기독교단(CCT)의 노회로 흡수가 되어 관할 구역의 복음화를 담당하고 있다.

회복과 성장의 시기(1941 - 현재)

제 2 차 세계대전 후에는 힘을 잃어버린 교회들과 태국교회 지도자들도 회복되고 교회들 안에는 영적 움직임이 태동하고 전체적으로 교회가 다시 힘을 찾게 되었다. 1951년 성직자가 39명에 95개였던 태국 기독교단(CCT) 조직교회가 1978년

³¹ Ibid, 113.

³² H. R. Swanson, Khrischak Muang Nua: A Study in Northern Thai Church History, Chuan Printing Press, Bangkok Thailand, 1984, p. 12.

³³ <http://www.cct.or.th/about.php>

성직자 97 명에 조직교회 203 교회로 늘어났다.³⁴ 1957 년 미국 장로교 선교부는 장로교회의 사역에 변화가 옴에 따라 선교부가 태국 기독교단 (CCT)의 권위 아래서 그들의 선교사역을 하게 되었다.³⁵

이 시기에 태국에 들어온 선교단체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며 교회 재건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이때 태국에 입국한 선교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1947 년 Worldwide Evangelistic Crusade

1948 년 Finnish Free Foreign Mission

1949 년 American Church of Christ Mission to Thailand

1949 년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1951 년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formerly China Inland Mission)

1951 년 Swedish Free Mission

1951 년 New Tribes Mission

1952 년 American Baptist Mission. 재입국

1952 년 Mission Covenant Church of Denmark(WEC 과 연계)

1953 년 Marburger Mission

1956 년 Presbyterian Church in Korea(KIM)

1957 년 Thailand Child Evangelism Fellowship

1959 년 Church of South India

³⁴ A. G. Smith, *Siamese Gold: A History of Church Growth in Thailand*, Kanok Bannasan(OMF Publishers), Bangkok, Thailand, 1982. p. 220

³⁵ S. H. Chung, "A Study on Church Planting Strategy of Korean Missions in Thailand," D. Min. dissertation,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California, U. S. A., 1992. p. 59.

1960 년 Pentecostal Assemblies of Canada
 1969 년 Far East Broadcasting Company
 1969 년 The Evangelical Fellowship of Thailand(EFT)
 1970 년 Campus Crusade for Christ
 1971 년 KIM 선교회
 1972 년 YWAM(Youth With a Mission)
 1973 년 World Vision Foundation
 1976 년 Baptist Union of Sweden
 1977 년 Scripture Union
 1979 년 Korea Presbyterian Mission to Thailand
 1989 년 이후 현재까지 WPM, KGAM, PCK, PROK 등.

태국 기독교단(CCT)의 배경

태국 기독교단(CCT)은 1828 년 처음으로 장로교 선교사인 야곱 톰린 목사와 칸 꾀랍이 기독교를 전파한데에 기초를 둔다. 이들은 미국의 교회들에 의해 파송된 런던 선교 협회(London missionary Society)의 선교사들이었다. 초기에 싸이암왕국에 도착해서 사역한 개신교 선교단체는 5 개로 1828 년에 런던선교협의회(London missionary Society), 1831 년 미국 해외선교부(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 1833 년에 미국 침례교 해외선교사 협회(American Baptist Foreign Missionary Society), 1840 년에 미국장로교

선교부(America Presbyterian Mission), 그리고 1850 년에 미국 선교사 협회(American Missionary Association)등 이다.³⁶

사실상 태국 기독교단(CCT)는 1840 년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 생겨났는데 1847 년 의사 사무엘 하우스와 사띠펜 목사 그리고 메리 메튼 선교사가 서로 협력하는 기관을 만듦으로 태국 기독교단(CCT)가 시작되었다. 이 단체는 1948 년 8 월 31 일에 방콕에 장로교회를 세웠는데 1849 년에 선교사들과 중국인 1 명의 성도로 구성된 싹새 제 1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1860 년이 되고 최초의 태국 성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1858 년 9 월 1 일-1961 년까지 싸이암에 장로교회들을 세웠다. 그리고 이 선교단체는 1861 년 다니엘 목사와 사무엘 목사가 팻차부리에 선교센터를 세우게 되었고 다른 지역으로 확장을 하게 되었다.³⁷

1867 년 다니엘 맥길버리 선교사 가족은 치앙마이에 기독교 선교를 위한 선교센터를 설립했다. 이 선교센터는 복음제시와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게 되었고 그의 동료였던 윌슨 선교사 가족과 함께 팀 사역을 하며 1868 년 4 월 18 일에 치앙마이 제 1 장로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 소속인 버드와의 협의를 통하여 라오스 선교회를 설립했다. 당시에 방콕의 태국 중앙정부와 외국인들이 태국의 북부지역과 과거 란나(Lanna)왕국(치앙마이 및 근교 지역)의 지역을 통칭하여 라오스라고 불렀기 때문에 태국 북부 선교회의 이름을 라오스 선교회라고 했다.

1868 년 미국 장로교회는 두 개의 선교기지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한 곳은 방콕에 있는 싸이암 선교기지이며 다른 한 곳은 북부 지방의 치앙마이에 있는

³⁶ 최승근 “태국에서의 동반자 선교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78.

³⁷ Ibid, 78.

라오스 선교기지였다. 1885년에는 북쪽 사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라오스 장로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남부지방의 선교는 1895년에 선교사를 나컨시탐마랏에 파송하여 1900년까지 선교본부와 교회, 학교를 세웠고 1901년부터 선교사역을 시작하였다. 1910년에는 뜨랑에 오지선교와 남부 지방 선교를 위한 선교본부를 설립하게 되었고 1915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1922년에는 탐티양군에 학교를 설립 하였고 이후 이 선교본부는 복음전도의 사역을 후위리엣, 깐땅 그리고 푸켓 등지의 남부지역으로 확장하였다.

1867년 맥길버리 선교사 가족이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 세운 라오스선교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1878년에 북부 태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치앙마이와 람퐁 그리고 람빵지역에 종교의 자유화(Edict of Toleration)를 선포하였다. 1889년에 치앙마이에 시작된 신학교는 지역교회에서 사역할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시작이 원활하지 못하여 중단되었고 1912년에야 맥길버리 신학대학으로 시작되었다. 이 대학이 현재 태국기독교단(CCT)소속 총회신학교인 맥길버리 신학교(McGilvary College of Divinity) 과얏대학(Payap University)이다. 또한 출판사역을 위한 출판소는 1892년에 시작되었는데 태국어로 출판 한 것이 아닌 당시 언어인 란나(Lanna)어로 출판을 하게 되었다. 1908년에는 맥켄(Mckean) 선교사로부터 맥켄 한센병원(현 Mckean Senior Center)이 개원되었고 태국 북부 및 중부 그리고 중국 국경지대에 살고있는 한센환자들을 위한 의료선교사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 치앙마이 최초의 선교사들은 대부분 의료종사자가 많았고 이들은 거점선교본부와 의료 및 교육 사역에 중점을 두었고 그 후에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미국장로교회 선교부 외에도 태국 기독교단안에 1903 년부터 디사이플(Disciple) 선교부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랏차부리를 중심으로 선교본부를 만들고, 현지 상황에 맞는 선교사역을 수행하였으며 이들은 선교사역의 대다수의 인원을 현지인들로 충원하여 사역하였다. 초기에는 영국 그리스도교단에서 출발하였으며 제 2 차 세계대전후 디사이플(Disciple) 선교회로 개명을 하였다. 미국 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는 1889 년에 중국사역을 확장하여 태국에까지 그 영역을 넓혔다. 담당자는 이전 미국 장로교회 선교부 태국 선교사를 역임하였던 존 카링턴 목사였고 이들의 사역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선교초기 사역부터 1894 년까지는 현지인들을 위한 선교와 목회를 서양 선교사들이 담당하였다. 1895 년 미국장로교 선교사들로부터 네비우스정책(Nevius Plan)이 알려지게 되었고 태국기독교단(CCT)의 흐름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정책으로 인하여 1920 년 라오스(Laos)선교회와 싸이암(Siam)선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고 태국교회는 태국인들에 의한 교회로 자리잡게 되었다. 1928 년 태국 기독교장로교회 100 주년에 태국 자치교회들로 하여금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는데 태국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을 예루살렘 회의(Jerusalem Conference)에 대표로 가게되었고 이 대표들이 1925 년에 싸이암 민족기독교협의회(National Christian Council in Siam)를 만들어 자립 교회의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1934 년에는 현 태국기독교단(The Church of Christ in Thailand)의 전신인 싸이암 기독교총회(Church of Christ in Siam)가 형성이 되었다. 1934 년 4 월 7-11 일까지 첫 총회가 열려 헌법을 제정하였고 1939 년 6 월 싸이암(Siam)이 태국(Thailand)으로 국가의 명칭을 변경하게 되므로 1940 년 태국기독교총회(The

Church of Christ in Thailand)로 개명을 하였다.³⁸ 처음에는 미국장로교 선교부와 미국침례교 선교부가 함께 CCT 를 조직하였으나 후에 많은 협력 선교단체를 합하여 CCT 의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1940 년까지 태국 기독교총회는 현지인 지도자가 부족하여 자립, 자치, 자전의 구조로 가지를 못했고 외국 선교사에게 큰 의존을 하는 구조가 되어 진정한 자국교회는 되지 못하였다.³⁹

1941 년 제 2 차 세계대전이 시작됨에 태국거주 선교사들이 본국인 미국으로 귀국함에 따라 태국 기독교단(CCT)은 재정 및 모든 행정운영의 문제들을 책임져야 했으며 교단의 자립에 더욱 신경을 써야 했다. 1945 년 전쟁 후 태국 기독교단(CCT)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이어나가던 중 1946 년 선교사들이 다시 태국으로 돌아와 선교사역을 이어나가며 연합사역을 위한 노력을 실시하게 되었고 1952 년에 선교사와 함께 연합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부서와 기관들을 조직했다. 이 시기에 태국 기독교단(CCT)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1948 년에 창설된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초기 회원이 됨으로 세계교회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태국 기독교단(CCT)은 서양 선교교단의 선교사들과 함께 협력사역을 하게 되었고 선교를 위한 거점 노회가 확장이 되었다. 또한 1955 년에 제 11 노회가 나콘빠툼(Nakhon Pathom) 도에 조직이 되었으며 1957 년에는 제 12 노회가 조직되었고 1974 년에 C.M.A(Christian Missionary Alliance)가 사역하여 형성된 태국 이산지역 교회들 중 일부가 태국 기독교단(CCT)에 합류하여 제 13 노회를 이루게 되었고 1977 년에 제 14 노회가 치앙마이 맥켄 한센병원 안에(Mckean Leprosy

³⁸ P. Pongudom, *The History of the Church of Christ in Thailand*, Chuanphim Publisher, Bangkok, Thailand 1984, 79.

³⁹ Ibid, 71.

Hospital) 한센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들이 조직되었고 1982 년 독일 마부거 미션 선교부에 의해 파야오도(Payao)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의 노회를 이루어 제 15 노회가 되었다. 1989 년 제 16 노회가 미국 북침례교회 선교부(T.B.M.F)가 사역하던 쌍크라부리(Sangkhla Buri)를 중심한 카렌족교회들로 조직(스고 카렌)이 되었다. 1991 년 제 17 노회가 트랑(Trang)에 조직되었고 1992 년에 제 18 노회가 미국북침례교 선교부가 사역하던 라후족(Lahu)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이 되어졌고 1994 년 태국 북부에 있던 침례계통 카렌족(Karen)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 제 19 노회가 설립이 되었다. 또한 2010 년 이후로 제 20 노회 소수민족인 몽족(Hmong), 제 21 노회 소수민족인 라후족, 제 22 노회 소수민족인 아카족(Akha) 제 23 노회 소수민족인 리수족(Lisu) 제 24 노회 소수민족인 라후족(빨간 라후족)으로 구성이 되어졌다.

1957 년 미국 장로교회 선교부의 선교정책의 변화에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개척과 팀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에서 동역자로, 현지 사역자들의 동료의 입장이 되어 태국 기독교단(CCT)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 그들이 원하며 그들이 하고자 하는 연합 선교사역을 시작했다. 1964 년 태국 기독교단(CCT)은 말레이시아의 싸라왓 섬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⁴⁰하게 되었고 태국교회의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 되었다. 그 이후로 태국 선교사 3 명이 이곳에 선교사로 파송되게 되었는데 처음과 같은 성과는 얻지 못하였다.⁴¹

태국 기독교단(CCT) 총회는 1998 년에 개정된 총회헌법에 근거해서 자치를 해 나가고 있으며 총회의 조직은 3 개의 조직 즉 총회, 노회, 지역교회로 구성이 되었고

⁴⁰ ศจ.ดร.บุญรัตน์ บัวเย็น(분랏 부아옌 목사, 현 태국기독교단 총회장)

⁴¹ CCT, 태국기독교단 교단본부헌당식 책자 / Bangkok: CCT Print 2005 30-45

총회는 매 2 년에 1 회 실행이 되어지고 있다. 태국 기독교단(CCT)은 2024 년 현재 24 개의 노회와 8 개의 병원 및 시니어센터 그리고 28 개의 기독교 사립학교와 2 개의 대학(파얏대학교, 나컨빠툼 기독교대학) 3 개의 국제학교가 교단산하에 있다.

태국 기독교단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성장을 이룩해왔고 교회의 증감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22 년에는 조직교회 1,019 개, 준자립교회 636 개, 미자립교회 379 개

2023 년에는 조직교회 1,030 개, 준자립교회 639 개, 미자립교회 381 개

2024 년 현재 조직교회 1,056 개, 준자립교회 693 개, 미자립교회 404 개로 등록이 되어있다.

<표 1>태국기독교단 2022-2024 년 총회책자 교회증감 보고

ตารางที่ 12 สถิติ แสดงจำนวนคริสตจักรที่เลี้ยงตนเองได้และคริสตจักรในโครงการ 1979/2005 เปรียบเทียบ
ในช่วงเวลา 2 ปี ค.ศ. 2022 กับปี ค.ศ. 2024

คริสตจักร ภาค	ปี 2022		ปี 2023		ปี 2024		เปรียบปี 2022 กับ 2024 คจ.ในโครงการ 1979/05 (เพิ่ม/ ลด)
	จำนวน คจ. ทั้งหมด	คจ.ในโครง การ 1979/05	จำนวน คจ. ทั้งหมด	คจ.ในโครง การ 1979/05	จำนวน คจ. ทั้งหมด	คจ.ในโครง การ 1979/05	
1	98	15	97	15	99	12	-3
2	86	0	92	0	92	0	0
3	18	1	18	1	18	1	0
4	18	3	18	3	18	3	0
5	14	4	14	3	14	2	-2
6	28	0	23	0	23	0	0
7	75	1	76	1	76	1	0
8	10	1	10	1	10	1	0
9	15	6	15	4	15	4	-2
10	26	0	26	0	26	0	0
11	9	0	9	0	9	0	0
12	100	0	104	0	105	0	0
13	34	6	34	5	35	4	-2
14	9	1	9	1	9	0	-1
15	21	1	21	1	21	1	0
16	25	0	27	0	27	0	0
17	26	2	26	2	26	2	0
18	80	0	83	0	82	0	0
19	176	0	176	0	195	0	0
20	18	0	18	0	18	0	0
21	44	0	43	0	43	0	0
22	46	0	47	0	46	0	0
23	15	0	16	0	21	0	0
24	28	0	28	0	28	0	0
รวม	1,019	41	1,030	37	1,056	31	-10

또한 CCT 교단 산하 1 개의 태국교육부인가 파얏대학교 신학부(Payap University)에서는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방콕 소재 B.I.T 신학교와 교단인정 소수민족 목회자 양성 신학교(라후, 카렌, 아카)에서도 꾸준히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다. 태국 기독교단 소속 목회자의 증감 추세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22 년 전임교역자 1,893 명

2023 년 전임교역자 1,949 명

2024 년 전임교역자 2,011 명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태국기독교단 2022-2024 년 총회책자 목회자 보고

ตารางที่ 13 แสดงจำนวนศิษยาภิบาล รักษาการศิษยาภิบาล ผู้ช่วยศิษยาภิบาล ระหว่างปี ค.ศ. 2022 - 2024 เปรียบเทียบกับปี 2022 กับ 2024

คริสตจักรภาค	2022/2565				2023/2566				2024/2567				เปรียบเทียบปี 2022 กับ 2024 (เพิ่ม/ลด)			
	สบ.	รสบ.	ผสบ.	รวม	สบ.	รสบ.	ผสบ.	รวม	สบ.	รสบ.	ผสบ.	รวม	สบ.	รสบ.	ผสบ.	รวม
1	122	10	70	202	122	10	70	202	135	7	85	227	13	-3	15	25
2	110	30	7	147	119	27	6	152	117	30	5	152	7	0	-2	5
3	10	2	1	13	17	2	1	20	18	3	0	21	8	1	-1	8
4	14	1	2	17	16	1	3	20	16	1	2	19	2	0	0	2
5	8	0	4	12	6	1	3	10	5	2	3	10	-3	2	-1	-2
6	24	3	27	54	33	3	25	61	33	3	25	61	9	0	-2	7
7	79	31	72	182	86	31	68	185	87	31	72	190	8	0	0	8
8	12	0	3	15	13	1	3	17	14	0	2	16	2	0	-1	1
9	10	2	1	13	8	2	1	11	9	1	1	11	-1	-1	0	-2
10	37	12	24	73	35	12	25	72	35	13	25	73	-2	1	1	0
11	10	2	1	13	10	1	0	11	11	1	1	13	1	-1	0	0
12	166	9	135	310	171	17	138	326	172	20	131	323	6	11	-4	13
13	30	4	7	41	30	4	11	45	37	3	6	46	7	-1	-1	5
14	9	1	3	13	13	0	2	15	9	0	1	10	0	-1	-2	-3
15	21	2	0	23	20	2	0	22	24	3	0	27	3	1	0	4
16	54	1	17	72	49	3	18	70	48	5	17	70	-6	4	0	-2
17	14	6	3	23	13	6	4	23	14	5	4	23	0	-1	1	0
18	125	0	2	127	125	0	3	128	128	0	3	131	3	0	1	4
19	179	4	112	295	179	5	112	296	191	4	110	305	12	0	-2	10
20	7	6	8	21	15	6	8	29	19	3	15	37	12	-3	7	16
21	21	32	23	76	21	37	23	81	28	43	22	93	7	11	-1	17
22	22	25	2	49	26	31	2	59	25	31	2	58	3	6	0	9
23	32	0	17	49	27	0	14	41	26	1	15	42	-6	1	-2	-7
24	39	1	13	53	39	1	13	53	39	1	13	53	0	0	0	0
รวม	1,155	184	554	1,893	1,193	203	553	1,949	1,240	211	560	2,011	85	27	6	118

หมายเหตุ :

สบ. หมายถึง ศิษยาภิบาล

รสบ. หมายถึง รักษาการศิษยาภิบาล

ผสบ. หมายถึง ผู้ช่วยศิษยาภิบาล

- ปี ค.ศ. 2022 จากรายงานของคริสตจักรภาคที่ 1 - 24 เสนอต่อที่ประชุม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อำนวยการสภาคริสตจักร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 สมัยสามัญครั้งที่ 2/2023 ระหว่างวันที่ 20 - 21 กันยายน ค.ศ. 2023 ณ อาคาร 75 ปี จังหวัดเชียงใหม่
- ปี ค.ศ. 2023-2024 จากรายงานของคริสตจักรภาคที่ 1 - 24 เสนอต่อที่ประชุมสมัชชาสภาคริสตจักร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 สมัยสามัญ ครั้งที่ 38 ระหว่างวันที่ 15 - 18 ตุลาคม ค.ศ. 2024 ณ หอประชุมโรงเรียนกรุงเทพคริสเตียนวิทยาลัย 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

태국은 헌법으로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태국은 뿌리깊은 소승불교의 역사가 있는 나라이며 소승불교를 말하지 않고는 태국을 말할 수 없다. 한국의 대승불교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으며 다수보다는 개인중심의 신앙생활과 공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이다. 한 예로 태국의 장례는 화장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마을에 있는 사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가족이 불교인이며 부모 중 한 명이 크리스찬일 경우에도)은 사원에서 화장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종교적인 상황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에 크리스찬들이 겪는 문제중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태국 기독교단(CCT)은 교회를 통하여 지속적인 전도가

있어왔고 교인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여겼고 선교사와의 연합을 통하여 또한 태국기독교단(CCT)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달란트를 통하여 전도와 복음전파 사역에 임하고 있다.

태국 기독교단(CCT) 등록교인의 증감은 다음과 같다.

2022 년 230,161 명

2023 년 231,083 명

2024 년 236,324 명으로 6,163 명이 증가하였다.

<표 3>태국 기독교단 2022-2024 년 총회책자 교인증감 보고

ตารางที่ 14 สถิติแสดงจำนวนสมาชิกสมบูรณ์และสมาชิกสำรอง

ของคริสตจักร หมวดคริสเตียน และจุฬารักษ์

ระหว่างปี ค.ศ. 2022 - 2024 เปรียบเทียบ 2 ปี ค.ศ. 2022 กับ 2024

คริสตจักร ภาค	2022/2565			2023/2566			2024/2567			เปรียบเทียบปี 2023 กับ 2024 (เพิ่ม/ลด)		
	สมบูรณ์	สำรอง	รวม	สมบูรณ์	สำรอง	รวม	สมบูรณ์	สำรอง	รวม	สมบูรณ์	สำรอง	รวม
1	18,977	5,687	24,664	18,730	5,697	24,427	18,472	5,215	23,687	-505	-472	-977
2	13,381	6,795	20,176	14,184	7,266	21,450	14,407	6,892	21,299	1,026	97	1,123
3	2,183	464	2,647	2,251	528	2,779	2,126	475	2,601	-57	11	-46
4	2,170	599	2,769	2,160	636	2,796	2,177	639	2,816	7	40	47
5	2,595	804	3,399	2,600	810	3,410	3,003	825	3,828	408	21	429
6	6,255	1,168	7,423	5,587	1,446	7,033	5,798	1,547	7,345	-457	379	-78
7	8,851	2,793	11,644	9,142	3,013	12,155	9,238	3,013	12,251	387	220	607
8	1,235	362	1,597	1,280	355	1,635	1,280	355	1,635	45	-7	38
9	1,135	219	1,354	1,123	213	1,336	1,095	236	1,331	-40	17	-23
10	6,833	3,006	9,839	6,833	3,006	9,839	6,216	3,266	9,482	-617	260	-357
11	2,208	482	2,690	2,208	482	2,690	2,306	507	2,813	98	25	123
12	11,023	10,298	21,321	11,093	10,358	21,451	11,574	10,029	21,603	551	-269	282
13	3,090	1,381	4,471	2,992	1,193	4,185	3,139	1,402	4,541	49	21	70
14	1,255	300	1,555	1,275	336	1,611	1,317	289	1,606	62	-11	51
15	2,444	701	3,145	2,481	697	3,178	2,446	650	3,096	2	-51	-49
16	5,047	4,546	9,593	5,396	4,739	10,135	5,487	4,134	9,621	440	-412	28
17	2,680	254	2,934	2,679	127	2,806	2,929	150	3,079	249	-104	145
18	9,314	6,903	16,217	9,501	6,836	16,337	9,523	7,070	16,593	209	167	376
19	34,827	15,172	49,999	34,827	15,172	49,999	36,521	17,745	54,266	1,694	2,573	4,267
20	2,594	2,890	5,484	2,616	3,345	5,961	2,955	3,414	6,369	361	524	885
21	4,750	3,125	7,875	5,112	3,395	8,507	5,252	3,123	8,375	502	-2	500
22	5,986	3,094	9,080	5,836	3,393	9,229	5,839	3,314	9,153	-147	220	73
23	4,604	1,419	6,023	2,633	1,359	3,992	2,999	1,696	4,695	-1,605	277	-1,328
24	2,440	1,822	4,262	2,320	1,822	4,142	2,371	1,868	4,239	-69	46	-23
รวม	155,877	74,284	230,161	154,859	76,224	231,083	158,470	77,854	236,324	2,593	3,570	6,163

태국 기독교단(CCT)을 이루고 있는 1-24 노회의 교회는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임명하여 사역하도록 도왔다. 이 전도자는 일반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아닌 순회 전도 사역(예수를 믿지 않는 마을)을 하는 전문 사역자로서 교회에서 임명을 받아 사역을 한다.

태국기독교단에 등록된 전도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2021 년 379 명

2022 년 381 명

2023 년 381 명

2024 년 411 명

특이한 점은 10 노회와 16 노회가 일반 다른 노회보다 많고 그중 19 노회는 월등히 많은 전도자를 파송하였다. 앞에 언급한 10, 16, 19 노회는 소수민족인 카렌족으로 이루어진 노회이다. 카렌족 전도의 방법과 목표는 태국인을 섬기며 전도하는 것 보다는 카렌인으로 이루어진 카렌어를 사용하는 이웃 마을들을 다니며 교회가 없는 마을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올때까지 전도사역을 한다. 이 후에 회심자가 나오게 되면 가정 교회로 시작하여 교회를 이루는 방법을 하고 있다. 이 과정은 단 기간에 열매를 얻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카렌교회는 이것을 통하여 복음전파하는 것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카렌의 마을은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있는 마을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마을의 이장과 무당이 타종교(기독교)가 전파되어지는 것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장은 마을을 돌보며 지역 선거에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앙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거나 마을의 공공기물 발전에 대한 약속을 받아 마을의 이곳저곳을 편리하게 해주는 공적인 사람이며 무당은 마을의 종교적인 대소사를 논하며 마을의 원로와 같은 계급의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장과 종교적으로는 무당의 의중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다. 이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며 전도자는 예수를 믿을때 받는 고통과 핍박을 함께 나누며 초신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 카렌족의 전도 방법과 교회 및 특징은 다음 장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표 4>태국 기독교단 2022-2024 년 총회책자 전도자 증감 보고

ตารางที่ 16 แสดงจำนวนผู้ประกาศเผยแพร่พระกิตติคุณในคริสตจักรภาค 1 – 24
สภาคริสตจักร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 ปี 2021 – 2024 เปรียบเทียบ 2 ปี ค.ศ. 2022 กับ 2024

คริสตจักร ภาค	ผู้ประกาศคริสตจักรภาค				เปรียบเทียบปี 2022 กับ 2024 (เพิ่ม/ลด)
	ปี ค.ศ. 2021	ปี ค.ศ. 2022	ปี ค.ศ. 2023	ปี ค.ศ. 2024	
1	7	4	5	5	1
2	1	1	0	0	-1
3	1	1	1	1	0
4	2	2	2	1	-1
5	6	6	7	3	-3
6	1	1	2	2	1
7	0	0	0	0	0
8	0	0	0	0	0
9	1	1	1	1	0
10	23	22	23	23	1
11	1	1	1	1	0
12	1	0	0	0	0
13	1	1	1	1	0
14	1	1	1	1	0
15	0	0	0	1	1
16	37	38	39	42	4
17	4	8	8	9	1
18	14	7	6	6	-1
19	255	278	278	305	27
20	0	0	0	0	0
21	21	3	4	6	3
22	0	0	0	0	0
23	0	3	0	1	-2
24	2	3	2	2	-1
รวม	379	381	381	411	30

포 카렌족 배경

포 카렌(Pow Karen)은 북부 태국과 미얀마 서부 일대에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 풍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다. 86,000 명의 포 카렌(Pow Karen)이 살고있으며 복음화율은 2%다. 본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포 카렌족(Pow

Karen)은 태국으로 언제 이주하여 살고 있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포 카렌족 마을중 70년 이전부터 있었던 매홍손에 위치한 ‘껡빠따이’와 미얀마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딱(Tak)도 깊은 산 정상에 있는 ‘매햇’ 마을 원로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알아낸 사실은 정확한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대략 70년 전 부터 태국 북서부 국경지역 미얀마로 부터 태국으로 이주해 왔다고 한다.⁴²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들에게 있어서 국경의 개념이 모호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동 현상이 어렵지 않게 일어날 수 있었다.

태북 북부의 포 카렌족(Pow Karen)은 산간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일부는 치앙마이, 매홍손, 람퐁 지역의 평야 지대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보통 논과 밭의 작물을 재배하며 살아가고 있고 가축을 키우거나 도시에 살고있는 포 카렌족(Pow Karen)경우에는 태국인이 주인으로 있는 소작농으로 살아가고 있다.

북부의 포 카렌족(Pow Karen)은 소승불교와 자신들이 조상대대로 믿고 내려온 카렌종교(귀신)을 혼합하여 믿고 있으며, 마을마다 무당이 있어 영적인 존재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주관하고 있다. 매사리앙을 비롯한 대부분의 포 카렌(Pow Karen)마을에서는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특히 마을에서 첫 기독교인의 경우는 추방을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핍박을 견디며 마을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믿는 사람들과의 연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바꾸며 살아간다는 의미와 같기 때문이다.

포 카렌의 종교적인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⁴² 껡빠느아 마을 원로와의 대화. 82세로 껡빠느아 마을과 지역 마을 등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글을 모르는 관계로 문자적인 증거 자료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또한 5개 교회 중 가장 높은 산에 위치해 있는 매햇 마을의 원로도 미얀마로부터 매햇마을(미얀마 국경과 가까움)로의 이주가 70년 이상이 되었다고 말한다.

<표 5>조슈아 프로젝트

Major Religion ▲	Percent
Buddhism	40.00 %
Christianity (Evangelical 2.00 %)	12.00 %
Ethnic Religions	48.00 %
Hinduism	0.00 %
Islam	0.00 %
Non-Religious	0.00 %
Other / Small	0.00 %
Unknown	0.00 %

43

포 카렌(Pow Karen)은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갖고있지만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스고 카렌의 언어는 미얀마어로 부터 사용이되어져 왔지만 포 카렌의 경우 글이 없었기 때문에 태국어의 글자만 가져와 음가대로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스고 카렌과 포 카렌은 언어가 일치하는 부분이 적기때문에 부족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는 불편함이 있다. 포 카렌족은 태국 시민권자로서 태국의 교육정책으로 아무리 깊은 산골 마을이라 할 지라도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건축했기 때문에 초등교육을 받고 있으며 학교를 통하여 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지만 이와 더불어 자신들의 민족 언어인 포 카렌(Pow Karen)말과 풍습, 문화는 이들이 속한 가정과 마을 공동체에서 함께 배우고있다.

베들레헴 시찰회 역사적 연구

⁴³ https://joshuaproject.net/people_groups/20333/TH

베들레헴 시찰회는 태국 기독교단(CCT) 19 노회(카렌노회)와 큰 범주에는 TKBC 에 속해있다. 태국 기독교단 24 개의 노회중 11 노회, 16 노회, 19 노회, 3 개의 노회가 카렌족 노회이다. 이 노회중 포 카렌은 19 노회에 속해있으며 베들레헴 시찰회는 포 카렌족이 주류이며 매홍손도에 위치한 쏘머이읍과 매사리양군 지역을 산마을 중심으로 사역이 시작되었다. 1982 년 스웨덴 침례회가 매사리양군에서 포 카렌(Pow Karen)과 선교사역을 시작하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물품으로 카셋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였다. 이들은 산과 밀림을 다니며 마을마을을 방문하였기에 매우 어려운 복음 사역을 하였다. 소수의 마을은 이들을 환영해 주었지만 대부분의 마을은 마을대표나 무당이 허락을 해 주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로는 서양의 신(예수)를 믿는 외지인들이 자신들의 마을에 들어오면 마을의 조상신과 땅을 지켜주는 신이 화를 낸다는 이유였다. 또한 이들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고 도보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현재 베들레헴 시찰회는 87 개의 교회와 미자립교회가 있으며 쏘콩교회(1991 년), 초클로(1998 년), 통용(1999 년), 쿤매따쿠원(1999 년), 매햇(1999 년), 매콩(2001 년), 이위조(2004 년), 꺼타(2004 년), 쯔타(2004 년), 매캐(2007 년), 호웨이 마남싸이(2007 년)가 먼저 세워지게 되었고 2013 후로는 76 개의 교회와 미자립교회가 추가되었다.

베들레헴 시찰회는 자녀들의 교육의 연장을 위한 기숙사 사역을 스웨덴 선교부와 함께 하였고 쏘머이읍 지역에는 초등, 중등과정 기숙사가, 매사리양군에는 중, 고등 기숙사가, 치앙마이시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녀 카렌의 학생들이 직업학교 및 대학교를 다니기 위하여 거주의 목적으로 기숙사 사역 및 카렌 교회 사역을 작게 감당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11 개 교회는 베들레헴 시찰의 어머니 교회로서 어머니 교회를 통하여 자녀교회가 이루어졌으며 지속적으로 어머니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⁴⁴

<표 6> 베들레헴 시찰회에 속한 어머니 교회

	솜콩 교회 목회자 : 아피싯 1991 년 성도 : 120 명
	초클로 교회 목회자 : 유파린 1998 년 성도 : 90 명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교회
	통용교회 1999 년 목회자 : 솜차이

⁴⁴ 포 카렌 교회는 어머니교회와 자녀교회로 분류되어진다. 어머니 교회는 자립교회로서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교회 운영위원회가 갖추어져 있으며 교회는 전도자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마을에 들어가 이웃들과 함께 지내며 전도활동을 하게된다. 전도자는 단기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통하여 마을을 방문하게 되고 후에 한 가정이 예수를 믿게되면 그 가정의 집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교회의 건축에 대한 헌금과 기도를 한다. 이러한 미자립 교회를 자녀교회라 부르며 자녀교회가 어머니교회로서 성장할때까지 지속적인 지원과 심방을 이어나간다. 이러한 방법이 포 카렌(Pow Karen)의 전도 방법이다.



성도 : 100 명
대를 이어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



매카뚜원 교회
1999 년
목회자 : 해블리
성도 : 120 명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에 위치한 교회



매햇교회
1999 년
목회자 : 위쑈 전도사
성도 : 160 명
베들레헴 시찰회에 속한 교회 중 가장높은 지역에 있는 교회.



매콩교회
2001 년
목회자 : 타원
성도 : 80 명
치앙마이에서 가난한 지역(옴꼬이)에 위치한 교회 태국 왕실에서도 도움을 주고있는 지역 현재까지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음.

이위조 교회
2004 년
목회자 : 이뜨느



성도 : 140 명
2024 년 3 번째 교회 건물을 헌당
딱(Tak)도에 위치한 교회
현재까지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음

반꺼타 교회

2004 년

목회자 : 니란

성도 : 110 명

치앙마이 움꼬이 지역에 위치한 교회



반쁘타

2004 년

목회자 : 돛편 목사

성도 : 180 명

돛편목사는 매햇 교회에 첫 목회자였고 현재
쁘타로 내려와 개척을 하였다.



반매캐

2007 년

목회자 : 쭈미

성도 : 120 명

매쌌랩 지역에 위치. 미얀마와 태국 국경지에
위치해 있으며 비가 오면 마을로 갈 수 없는
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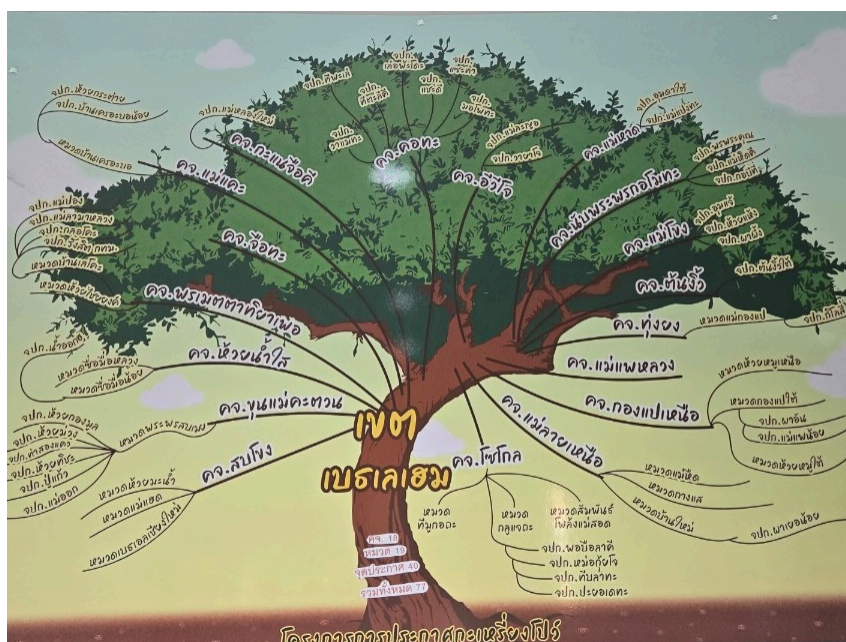
반호웨이남싸이

2007

목회자 : 쭈라셋

	성도 : 60 명 쏜머이 군에 위치한 교회.
---	-------------------------------------

<표 7> 베들레헴 시찰 교회 분포도



위 그림은 2024 년 베들레헴 시찰이라는 커다란 나무에 어머니교회와 자녀교회의 이름을 작성한 그림이다. 한 어머니 교회에서 작은 가지들이 나와 전도처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이 전도처가 어머니 교회로 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⁴⁵ (ข้อมูล) พันธกิจการประกาศแห่งเมืองโปว์ เขตเบธเลเฮม 유튜브 포 카렌 베들레헴 시찰회 자료

한다. 또한 어머니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시찰회와 상의하여 도움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하고 실천을하고 있다.

베들레헴 시찰회는 5 + 1 사역체계를 운영중에 있다. 이 운영체계는 베들레헴 시찰회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으며 톱니바퀴처럼 모든 사역이 연결되어 있다. 이 사역체계는 베들레헴 시찰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찰회, 교회,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만들어지고 실천을 하고 있는 강령이며 자신들의 문화를 이어나가려는 노력이 있다.

1. Mission on Evangelism of the gospel in Thailand and neighboring countries.

예수를 모르는 포 카렌(Pow Karen)지역 마을에 가서 예수를 전함. 아직 믿지 않는 카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신뢰를 주고 교회를 소개하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를 돌아보며 다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함. 이 사역은 어머니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며 재정적인 지원역시 아끼지 않는다.

2. Sunday school Mission

베들레헴 시찰회는 교회학교를 통하여 아이들이 예수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임을 알게되며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각 방학시즌마다 연합성경학교를 개최하여 아이들에게 바른 믿음을 성장시킨다.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치는 좋은 계기가 된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나무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선생님들은 미디어와 교사 강습회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기독교 교육 및 성경공부를 가르치는 기술을 발전시킨다. 또한 연합성경학교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노래, 율동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공동체 놀이를 통하여 서로를 위하고 믿는 훈련을 하고 있음.

3. Mission on Creating discipleship of Jesus Christ

모든 계층의 교회 회원들에게 영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를 통하여 포 카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을 증진 시키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는 복음이 부족한 지역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이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자 한다. 이 교육은 ‘예수님의 제자 세우기’ 라는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2 년이며 1 년에 8 번의 교육이 있으며 한 번의 교육당 1 주일동안 이어진다. 이 과정은 성경공부와 더불어 교제, 식사 나눔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가 되는 훈련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 모임은 포 카렌어로 이루어지게 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한 도고기도와 교회에 속한 성도 및 마을에 속해 있는 여러가지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에 대한 공부도 있다. 이 교육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로서 헌신을 다짐하고 있으며 실제로 청년들의 헌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임은 먼저 교육을 받았던 선배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 Mission on Pow Karen language Conservation

포 카렌(Pow Karen) 언어를 보존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목적이 있다. 소수의 포 카렌 사람들은 태국시민권자 이지만 태국어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포 카렌(Pow Karen)어 성경이 나오게 되었으며 찬송가도 만들었다. 이 과정은 젊은 포 카렌층에게 포 카렌어를 쓰고 읽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5. Mission on savings promotion, create career and income generating for the saving group's members.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베들레헴 시찰회 내에 크레딧 유니온(재정협동조합)을 만들어 두고있다.

각교회가 자립을 위하여 농사 및 노점등을 열어 성도들이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급하게 재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빌려주어 이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 현 이용인원은 783 명이고, 122 명의 운영진들, 14,254,537 바트가 저축이 되어 있다. 또한 저축을 장려하고 저축 그룹 회원들의 경력과 소득 창출을 돕는 사명을 갖고 있다.

6, other missions

추가적인 미션으로 상담영역인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교육 및 돌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전도회의 운영을 통하여 이웃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다.

또한 사회복지 사업을 함께 하며 마을에 일어나는 홍수, 질병, 미얀마 카렌족에 대한 도움을 주고있다. 이 여섯번째 사역은 개인이 혼자서 결정하여 하는 사역이 아닌 베들레헴 시찰과 교회가 함께 연합을 하고있다.

베들레헴 시찰은 위에 언급한 5 + 1 사역체제를 든든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한 성경읽기와 성경공부에 관한 전문적인 사역은 없다. 본인은 베들레헴 시찰회 5 교회와 시찰회 모임등을 참석한 결과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읽는것을 알게되었다. 이것은 조병호가 말한 “부분이 아닌 전체를 읽는 것” 이라 말하는 것에 반대가 되는 상황이다.⁴⁶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은 교회 성도들에게 부분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전체를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조병호가 말한 “성경은 문자로 읽고 음성으로 읽어야 하며 성경을 소리 내어 읽으면 말씀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게 된다” 말에 동의를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본인은 5 개의 교회와 함께 성경통독을 실시하게 되었다.

⁴⁶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2), 12.

제 IV 장

성경통독의 이해

성경통독의 성서적 배경

구약에서 ‘읽는다’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카라(קרא)이다. 이 말은 대부분 ‘부르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지만 ‘읽는다’, ‘낭독한다’의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고있다. ‘부르다’는 창세기 12:18, 신명기 15:2 절에 사용되어졌고 ‘낭독하다’는 예레미야 36:8, 14 절에 사용되어졌다. ‘읽는다, 낭독한다’의 의미는 두 가지로 그 뜻이 나누어진다. 말 그대로 말씀의 두루마리나 율법책을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읽거나 낭독을 하는 것과 ‘율법서’를 등사해서 옆에두고 스스로 읽는 것이다.

구약성서의 ‘읽다’와, ‘낭독하다’는 개인적으로 읽는 것과 회중 앞에서 낭독하는 것을 의미한다.⁴⁷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던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그 명령을 직접 돌판에 적어 모세에게 주셨다. 그리고, 모세는 그 돌판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즉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낭독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함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한 여호수아에게도 담대함을 명령하시며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⁴⁷ 강경태 “성경 통독이 성도의 설교 이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무학교회를 중심으로) 2016. 7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수 1:8) 지키라 하셨다. 모세는 율법의 말씀이 현 세대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에게도 읽혀지고 들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였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며 소리내어 읽음으로 시작되며 묵상과 행함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를 알았기에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후에 에발산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율법을 낭독하였다.

유다왕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고 성전 수리를 하던 중 발견한 율법책을 사반을 통하여 읽게 하였다. 유다왕 요시아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회개를 하였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세우신 리더자들은 율법의 말씀을 읽고 낭독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게하셨다.

신약에서 ‘읽는다’의 단어는 ἀναγιγνωσκω<아나기노스코>이다. 이 단어는 회람하며 읽는 것 즉 소리내어 읽는 것을 의미한다.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는 구약성서를 읽으며 암송을 하였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을 것을 권면하는데 이것도 소리내어 읽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였다.(행 17:1). 베뢰아 사람은 바울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한다.(행 17:11).⁴⁸ 그리고 사도 요한역시 계시록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음을 설명하였다.⁴⁹

⁴⁸ 강경태 “성경 통독이 성도의 설교 이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무학교회를 중심으로) 2016. 10

⁴⁹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8565>

성경통독의 역사적 배경

성경을 읽고 낭독하기 시작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시작되었다. 바벨론으로 추방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제사의식을 행할 수 없었다. 그 대신에 이들은 이방 나라에서 모이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자기 민족의 역사를 이해하고 생각하며 율법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일이 바탕이 되어 회당이 생기게 되었다.⁵⁰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였고 일반 학교가 가르치지 못하는 종교적 교육과 아동을 위한 보호소의 역할을 하는 장소였다.⁵¹ 유대인들은 토라의 본문을 54 개로 나누고 매주 회당에서 하나씩 읽음으로 1년에 한 번 완독을 하였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읽고, 해석과 토론을 하며 성경을 기억하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외하도록 교육하였다.

교부시대는 여러 성경 읽기 방법이 있지만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성경읽기의 방법은 알레고리적(allegory)해석 방법론이었다.⁵² 하지만 이 성경해석 방법은 본문의 본래적인 의미를 벗어나 자기 자신이 가진 기독교적인 개념을 주장하는 것으로 성경을 읽어나간다는 비판을 받는다.

중세시대에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은 3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는 전통적 해석, 둘째는 풍유적인 해석,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해석의

⁵⁰ Werner Forster, *From the Exile to Christ*, 문희석 역, 신구약 중간사 (서울: 컨콜디아사, 1985), 26.

⁵¹ 강경태 “성경 통독이 성도의 설교 이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무학교회를 중심으로) 2016. 11

⁵² Robert H. Stein, *예수의 비유*, 명종남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88), 42.

방법이다. 중세시대의 성경읽기 방법은 풍유적인 성경읽기 방법에서 역사적이고 문자적인 성경읽기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⁵³

현대의 성경읽기는 객관적, 과학적 방법을 통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성경 본문자체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 보다는 성경의 이면만을 연구하는 행위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의 가치와 권위를 손상시키게 되었으며 읽는 독자 역시 마음의 변화를 위함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위한 읽기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베들레헴 시찰에 속한 5개 교회는 포 카렌어로 된 성경이 있다. 하지만 50세 이상은 이 언어를 읽을 수 없고 말과 듣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성경말씀은 누군가 읽어주어야 듣게되기에 스스로 읽거나 함께 모여 입으로 말하는 성경읽기 방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을 갖고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나 행사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결국 배움의 부제와 함께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기회가 부족하기에 목회자의 설교 역시 늘 같은 주제와 본문이 되풀이 되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성경통독의 요소

성경통독의 요소를 몇 가지로 말할 수 있다. 꾸준히 읽기, 묵상하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알맞은 시간을 정하기, 전후 문맥을 살피며 성서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알고 읽기.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며 아는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읽기를 이해하는 것이라

⁵³ 강경태 “성경 통독이 성도의 설교 이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무학교회를 중심으로) 2016. 15

생각한다. 아울러 성경통독을 이야기 하기 전에 ‘통독이란 무엇인가?’ 를 알아야 한다.

통(通)의 문자적 의미를 보면 통하다, 꿰뚫다, 두루 미치다. 탈없이 통하다. 두루 알다. 환희 비치다. 통하게 하다. 걷다. 보급되다. 오가다. 왕래하다 등의 의미가 있지만 가장 포괄적인 뜻과 의미가 담겨있는 풀이는 ‘통하다’, ‘꿰뚫어 두루 미치다’ 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므로 통(通)이란 ‘꿰뚫어 두루 미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다.⁵⁴

통독이란? ‘통(通)의 방법으로 책을 읽는다’ 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성경을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등 장르에 따라 나누었고 성경 자체도 주제별이나 장르별로 편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병호는 “성경은 온 세상을 담고 있으며 각 시대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그 흐름에 따라 통(通)으로 읽어야 한다.”⁵⁵ 이러한 이유로 본인은 통성경이 베들레헴 시찰회 5 개의 교회에 필요한 성경읽기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본인은 조병호의 통성경과 성경통독을 통하여 베들레헴 시찰회 5 개 교회가 성경을 바로 알고 이해하게 가장 좋은 교재임을 알게되었다. 통(通)성경이란 성경 66 권 전체를 한 권으로 보고,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 내려가는 성경통독의 방법이다.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한 장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 성경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통독을 통해서만 읽을 수 있다. 즉 성경의 부분적 읽기는 영의 양식을 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⁵⁴ 조병호, *쉬운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09), 55-58.

⁵⁵ 조병호, *통이다 렛츠 통*, 85,

편식으로 획득한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헤아릴 수 없다.⁵⁶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고 그것을 적용하게 될 때 성경은 자기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진다. 아직 베들레헴 시찰회 5개 교회는 이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권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에서의 권위이며 성경의 본문과 그 성경이 쓰여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포 카렌어(Pow Karen)로 쓰여진 성경 자체를 전부 읽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이들에겐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성경과 성경읽기가 필요한 것이다.

성경통독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건을 잘 정돈하여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읽게 될 때에 성경을 이해하고 의미를 발견하는데 더욱 유익하다. 성경은 권별 특성과 메시지를 살려 역사와 연대적 맥락에서 읽어 갈 때, 현장감과 실체감을 갖게 된다.⁵⁷ 결국 통(通)성경읽기는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기때문에 성경통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베들레헴 시찰 5개교회 안에서의 성경통독

5개 교회의 주일 예배는 한국의 교회가 택하고 있는 예배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예배 전 온 성도들이 모여 찬양을 드린 후 인도자가 나와 예배의 시작을 알리고 회개의 기도와 대표기도 찬송과 본문말씀을 읽고 난 후 설교가 시작되고 헌금과 나눔의 시간(성도의 교제) 후에 예배를 마치게 된다. 5개의 교회에

⁵⁶ 오인천, 어린이 성경통독에 관한 목회적 연구, 2018. 15

⁵⁷ 강경태, 성경 통독이 성도의 설교 이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16. 25

있어서 담임목회자의 설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픈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배와 말씀보다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기에 염려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가는 열심보다는 주일에 교회에 가는 이유가 기도를 받고 아픈곳이 낫는 것을 바라는 성도들이 적지않게 있다.

본인은 지난 5년간 5개의 교회를 번갈아 가며 예배를 드렸고 카렌의 설교자는 성경본문을 구약의 말씀보다는 신약의 말씀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신약성서의 범위는 공관복음과 고린도전, 후서의 바울의 이야기를 사용한다.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루며 설교를 하기 보다는 목회자가 세미나 및 다른 설교를 듣고 인용하기 편한 내용으로만 설교의 주제와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베들레헴 시찰회안에는 목회자들의 성경공부와 신학을 공부하는 ‘제자양육’ 프로그램이 있다. 이 ‘제자양육’ 프로그램은 시찰회 소속 전도 및 교육담당 목사인 ‘사만’이라는 목사가 만든 청소년 양육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다. 1년에 2회 1주일간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도자가 나오거나 목회자로 헌신하는 젊은 교역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찬양과 서로에 대한 나눔 리더인 사만 목사의 강의와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이 프로그램은 성경에 대한 이해와 말씀을 이해하며 토론하며 통독을 하는 시간이 없다.

성경공부에 대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 ‘제자양육’을 수료한 목회자들이 모여 2024년 8월부터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무척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고 많은 기대를 하게되었다. 이 성경공부 프로그램의 리더는 말씀을 읽고 토론하며 목회 사역을 위한 도움을 이루고 목회자들의 고충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목표였고 매달 1회 1박 2일 일정으로 사역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역 역시 성경 전체를

공부하고 읽기 보다는 한 본문을 선정하여 나누고 강의를 듣고 나누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전부를 알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일독을 하기엔 어려운 책이라 믿는 경향이 있다. 본인은 ‘호웨이 무 파이’ 교회에 소속된 교인 몇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들에게 성경은 전체를 다 읽을 수 없고, 역사적인 내용과 의미는 목회자가 설명을 해 주어야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⁵⁸ 호웨이 무 파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쉽게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이 66 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가 많이 있다.

성경에는 대략 2,000 여년의 시간과 1,500 여 곳의 공간, 그리고 5,000 여 명의 인간들이 들어있다고 조병호는 말한다. 시간을 살펴보면 ‘태초’로부터 시작해 인간의 시작인 아담으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시간인 ‘처음’과 ‘끝’이 성경에 모두 들어있다. 그리고 많은 절기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 년의 시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 년의 시간을 비롯해 성경에는 많은 시간들이 들어 있다. 그리고, 성경에는 1,500 여 곳의 공간이 들어있다. 이 공간은 시간만큼이나 중요한데 공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한 곳이고,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된 곳이기 때문이다.⁵⁹ ‘제자양육’ 프로그램과 목회자 성경공부 프로그램은 현시적으로 볼 때 포 카렌족(Pow Karen)에게 신앙의 성장과 성경을 알아가기에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성경을 알고 그 안에 들어있는 처음과 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부하며 깨달을 수 없는 상황이 아쉬울 뿐이다.

본인은 매년 12 월에 크리스마스 예배에 맞추어 베들레헴 시찰회 교회를 방문하며 설교를 하거나 현지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다. 예배 참석과 더불어

⁵⁸ 호웨이 무 파이 교회 쏘맛 성도와의 대화 / 2024 년 2 월 예배 후 대화

⁵⁹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16), 18.

예수님의 탄생을 설교한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역시 개인과 가정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마리아와 요셉이 로마의 호적 등록명령에 따라서 임신한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만 길을 갔다. 이것은 로마가 더 정확하고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결정이었고 로마 제국과 유대 나라 이야기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와 동시에 역사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인과 가정 그리고 나라 이야기로 함께 통(通)으로 보아야 한다.⁶⁰

통(通)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5 개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추어만 있고 탄생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방대한 하나님나라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5 개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려운 책이다. 수 십년간 이들에게 성경이 어려운 책으로만 자리잡혀 있는 이유는 성경을 통(通)으로 보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본인은 5 개의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성경 전체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배울 수 있으며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고정관념이 깨지리라 믿는다.

⁶⁰ Ibid., 20-21

제 V 장

베들레헴 시찰교회에 필요한 성경통독 방법론과 공공신학

베들레헴 시찰 5 개 교회

베들레헴 시찰 5 개의 교회는 5 개의 마을이라는 의미와 같다. 이 5 교회는 현지 교회와 한국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로 예전 교회를 철거하고 새롭게 건축을 한 교회이며 교회만 건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매년 지속적으로 단기선교팀을 보내어 함께 선교를 하고 있다. 이 5 교회는 ‘호웨이 무 파이’ , ‘경 빼파이’ , ‘경 빼느아’ , ‘매라이 반 마이’ , ‘파안 전도처’ 이며 5 개의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는 교회이자 마을이다. 이 5 개의 마을은 다른 소수민족 교회와 비슷하게 마을 이장과 무당의 리더십이 강하다. 법적인 테두리는 이장이 책임을 지지만 법보다 강한 종교적 테두리는 무당이 중심이다. 태국 카렌족의 종교현상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종교분포가 비교적 뚜렷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치앙마이와 맞닿아 있는 람퐁도는 소승불교의 세력이 강하며, 치앙마이 매쩔군과 매홍손도의 매라노이군, 그리고 쿤유암군 지역은 천주교가 강하고, 베들레헴 시찰회의 교회들이 퍼져있는 매홍손도 매사리앙군과 북부 지역인 치앙라이도, 매홍손도 지역은 개신교가 강하다. 또한 딱도에 위치한 타송양군, 치앙마이 움꼬이군, 쏜머이군, 움팡군 지역은 전통종교가 강한 지역이다.

각 마을의 종교의식은 외부의 도움이 없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의 의미는 정확한 마을의 구분이 있으며 종교적인 행사를 주관하는 무당은 외부에서

대려오는 것이 아닌 마을 자체에서 세습되며 종교의식도 마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 5 개의 교회는 이러한 마을 종교 공동체위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 물론 5 개의 마을에서 교회가 크게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카렌 공동체안에서 이들을 이해하고 존중을 하고 있다.

A. 호웨이 무 타이 교회

‘호웨이 무 타이’ 교회는 매사리양군에서 1 시간 20 분 정도가 소요되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고립 마을이다. 이 교회의 시작은 어머니 교회인 ‘경빠느아’ 교회 전도팀으로부터 20 년전 2 가정이 처음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교회의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교회 형식으로 시작이 되었다. 경빠느아 교회 전도팀이 대단했던 이유는 경빠느아 마을 역시 교회가 서 있었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마을을 떠나 다른곳으로 가야하는 그곳만의 풍습이 있었다. 하지만 경빠느아 교회 전도팀은 자신들의 풍습으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살아계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 당시 예수를 믿었던 성도 1 가정의 자녀(장남)가 몇 년 이 지난 후 마을의 이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성도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선교사의 시선으로 바라볼때 집단개종과 비슷한 위험한 개종임을 알 수 있었지만 현재까지 큰 어려움없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믿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니 교회인

‘경빠느아’ 교회에서 지속적인 전도팀과 관계를 맺으며 방문을 쉬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을 전도사인 ‘아피싯’ 전도사 역시 경빠느아 마을에서 보낸 전도사로서 6 년간 사역을 하고 있다. 호웨이 무 타이 교회는 교회의 건물이 없는 가정교회로 오랜시간을 지내었다. 성도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회 건물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고 껀빠느아에서 파송한 아피싯 전도사를 통하여 본인이 호웨이 무
 따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10 여년 이상을 건축헌금을 모았고
 그 재정으로 교회를 지을 땅을 구입하였다고 했다. 후에 한국교회에 지원요청을
 하게 되었고 2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건축이 시작되었고 아피싯 전도사에게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와 사택을 함께 건축하게 되었다. 현재 호웨이 무
 따이 교회는 130 명의 성도와 20 명의 어린이(초등학생)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본인은 5 년전부터 호웨이 무 따이 교회에서 설교와 심방을 하고 있으며
 성경통독을 실시하여 함께 천천히 성경을 읽어가며 태국어와 카렌어 통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다. 아피싯 전도사는 정식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노회에서 운영중인 ‘성서신학원’ 과 비슷한 치앙마이에
 위치한 카렌신학 교육기관에서 2 년간 공부를 하였고 베들레헴 시찰회 산하 제자양육
 프로그램과 목회자 계속 교육(성경공부)을 받고있다. 하지만 이 교육역시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 없기때문에 본인과 협의하여 성경통독을 하고 있다.

호웨이 무 따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를 목표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아피싯 전도사는 이를 위하여 호웨이 무 따이 마을에 가장 필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미니마트, 프린터기 등을 구입하여 마을 사람들이 1 시간 반이나
 걸려 도착을 하게되는 매사리양군 시장을 가지 않아도 호웨이 무 따이 교회에서
 복사도 할 수 있고 필요한 기본적인 부식 및 물품이 구입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교회로 와서 교회의 뜻을 밝고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전략을 짜게 되었으며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 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믿지 않는 동네의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불편해 하지 않게 되었다. 본인은
 이러한 아피싯 전도사의 목회전략에 ‘성경통독’ 이 반드시 함께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올바른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역시 강조를

하고 있다. 호웨이 무 따이 마을에서의 성경통독은 2 중 통역(태국어, 카렌어)을 하며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한다. 예배역시 본인이 설교를 하게되면 두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한국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독으로 비교한다면 느리고 느린 방법이지만 성경을 통(通)으로 보는 방법만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때 지속적으으로 이어가고 있다.

<사진 1> 호웨이 무 따이 교회 아피싯 전도사와 성경통독 인도



호웨이 무 따이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주일 예배 후에 성도들과 함께 성경통독을 한다. 이 성경통독은 먼저 10 분정도 설명후에 함께 읽어나가고 있다. 2 중 통역과 설명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바른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사진 2> 호웨이 무 따이 교회 전경



B. 꺽빠따이, 꺽빠느아 교회

‘꺽빠따이’ 교회와 ‘꺽빠느아’ 교회는 길 하나로 나누어져 있는 이웃 마을이다. 이 두 마을은 한명의 이장과 한명의 무당이 마을의 리더자로서 행정과 종교를 이끌어나가고 있으며 특이한 두 마을의 특징은 예수를 믿으면 그 공동체 즉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30 년전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받은 여성 선교사에 의하여 ‘꺽빠따이’ 에 첫 복음의 씨앗이 심기워지게 되었고 이후 5 년동안 5 가정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 하지만, 마을에 알수없는 큰 역병이 돌아 기르던 가축들이 한 날에 모두 죽게 되었고 마을 무당은 눈에 가지였던 서양 여자 선교사로 인하여 마을 귀신이 노하여 병이 돌아 마을의 짐승들이 죽게되었다는 소문을 내었고 결국에는 아무런 죄가 없는 여성 선교사를 쫓아내게 되었다. 5 가정은 여 선교사가 마을에서 쫓겨나가는 날 뒤돌아 마을을 보며 우는 선교사를 보게되었고 곧 자신들

역시 쫓겨날 것을 직감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에 5 명의 성도들은 무당과 이장의 모함으로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들을 마을 밖 공동묘지로 근처로 쫓겨가게 하였다. 5 가정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공동체를 떠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태국 헌법에 기록된 종교의 자유에 근거) 매사리앙 군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중재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군청에서는 중재위원을 마을에 보냈다. 마을 이장과 무당 그리고 예수를 믿는 5 가정이 함께 회의를 하게되었다. 하지만 이 중재 역시 5 가정을 종교적으로 보호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와 선거의 영향(이장 및 군의원 투표 등)으로 이장과 무당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변하는 굽은 중재를 하게 되었다. 첫번째 중재안은 5 가정이 꺽뻀파이 마을을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과 십자가를 불태우고 그것을 건너가는 것이고, 세번째는 마을 신에게 드릴 소 1 마리의 값을 5 가정이 돈을 모아서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5 가정은 첫번째와 두 번째의 중재안을 믿음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것때문에 수용할 수 없기에 세번째 중재안인 소의 가격을 지불해 주는 것을 허락하였고 중재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후에 마을 무당은 그들의 돈으로 소를 구입하여 제사를 드리던 중 귀신께서 노하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하여 중간에 제사를 멈추게 되었고 이후로 중재안의 결의에 따라 기독교인들은 마을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꺽뻀느아와 꺽뻀파이 교회는 한국교회의 지원과 후원으로(서울 두모갓 감리교회)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마을 사람들이 교회건축부지 근처로 이전을 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작 꺽뻀파이와 꺽뻀느아는 예수를 믿으면 마을을 떠나야 하는 풍습이 남아있기에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일이 되었다. 본인은 5 년 전 부터 꺽뻀느아 교회와 꺽뻀파이 교회를 방문하여 설교와 심방을 하고 있으며 1 년 전 부터 성경통독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호웨이 무 파이 처럼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고있다. 꺽뻀파이 교회와 꺽뻀느아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포 카렌의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성경의 기초를 쌓고 있다.

<사진 3> 꺽빠따이 교회



현재 꺽빠따이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주일 예배 후에 성경통독을 하고있다. 다른 교회와 다르게 꺽빠따이 교회는 태국어로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성도들이 대다수이며 연세가 많은 성도들은 간간히 시간을 내어 포 카렌언어로 다시 설명을 한다.

<사진 4> 꺽뻔따이 교회 성경통독



<사진 5> 꺽뻔느아 교회



깁빠느아 교회는 깁빠따이 마을과 이장이 같은 사람이며 무당 역시 같은 사람이다. 깁빠느아 교회는 다른 지역교회보다 큰 규모이며 두 달에 한 번 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한다. 이 교회의 특징은 남자성도보다 여성 성도의 수가 많으며 태국어를 읽을 수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어서 포 카렌어로 따로 설명을 하지 않는다. 깁빠느아 교회는 마을 전도사가 결혼을 하게 되어 풍습대로 아내의 마을로 가게되었고 목회자 없이 4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이에 5 개의 교회중 예배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

C. 매라이 반 마이 교회

‘매라이 반 마이’ 교회는 19 년전 ‘꼬모’ 라는 목사님의 전도와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 역시 카렌의 전도자 시스템의 좋은 예라 볼 수 있다. 19 년 전 꼬모 목사의 전도로 현재 160 명의 성도와 30 명의 어린이들로 이루어진 교회로 성장을 하였다. 매라이 반 마이 마을은 한국의 대전과 같은 지역적 이점이 있는 곳이다. 다른 마을로 가기 위하여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마을이며 마을 입구에 교회의 간판이 크게 걸려있는 점이 특징이다. 매라이 반 마이 마을에서 재배되는 특산물은 생강이다. 이 생강농사로 마을에 많은 물류 차량이 오고가게 되었고 이로인하여 타 지역 카렌마을에서 이주를 해 오는 경우가 많다. 치앙마이와 가깝기 때문에 다른 소수민족 마을보다 자연적인 재해나 현상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은 없는 마을이다. 물론 이 마을 역시 무당과 이장이 있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지만 특이하게 마을 사람들에게겐 교회의 존재가 큰 거리낌이 없다. 그 이유는 매라이 반 마이 교회가 교회의 건물과 집기 등 대부분의 교회 살림을 마을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군청에서

실시하는 인근마을 농업 및 산림에 대한 회의를 매라이 반 마이 교회에서 하게 되며 읍에서 실시하는 마을 위생 교육과 마을 사람들의 결혼식까지도 할 수 있도록 열린 교회이다. 이러한 이유로 군청에서는 마을 공용 wifi 공유기를 교회에 설치를 해주었고 관리 또한 믿고 맡기고 있다. 뜻하지 않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인터넷을 하기 위하여 교회로 모이고 교회가 하나의 모임의 장소로 바뀌고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다. 교역자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교회 안으로 들어와 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는다. 이러한 교회와 교역자의 헌신으로 마을에선 예수님과 교회의 의미를 좋게 보고있다. 본인은 매라이 반 마이 교회가 본인이 주장하는 공공성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라 본다. 매라이 반 마이 교회는 10년간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인근 지역 교회에서 순회설교자를 보내어 매주 예배가 있었기에 성경에 대한 말씀 및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2023년 11월부터 다나이 전도사가 부임하여 교회의 리더자로서 인정을 받아 목회를 충실이 감당하고 있다. 매라이 반 마이 교회 역시 1년 전 부터 예배후에 원하는 성도들과 함께 성경통독을 하고 있다. 다나이 전도사 역시 성경 말씀에 대한 배움의 열정이 있었고 본인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이기에 성경통독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빨랐다. 또한 지정학적으로 매라이 반 마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도시로 가는 길 목에 있는 산 마을로서 태국어를 읽거나 쓸 수 있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4곳의 교회보다는 태국어에 대한 부담이 없고 카렌어로의 통역역시 크게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에 어려운 설명이 없이 성경을 읽고 느낌을 나눌 수 있었다.

<사진 6> 매라이 반 마이 교회



현재 160 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두 달에 한 번 씩 설교와 성경통독을 함께 나누고 있다. 매라이 반 마이 교회는 목회자가 없이 드러진 예배와 행사들이 오랜시간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다나이 전도사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또한 다나이 전도사 임명에도 교회의 만장일치로 찬성을 얻었기에 리더자 입장에서는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다. 매라이 반 마이 마을은 베들레헴 시찰회 교회 중 치앙마이와 가장 가까운 마을이기에 성도들의 대부분이 태국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다. 2023 년 매라이 반 마이 교회는 늘어난 성도를 감당할 수 없기에 한국 교회(대구 더사랑교회)와 연합하여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마을 공동체에 열린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

<사진 7>매라이 반 마이 교회 목회자



D. 파안 전도처

‘파안 전도처’는 ‘호웨이 무 마이’ 교회와 연합을 하고 있는 미자립교회이다. 파안 전도처 역시 ‘파안’이라는 마을에서 과거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작은 동네로서 4가구가 살고 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마을 근처로 갈 수 없기에 파안 마을을 가기위한 도로 중 산 사이에 있는 아랫길에 살고 있으며 파안마을로 부터 내려오는 농산물을 배송하는 차량의 잦은 이동으로 먼지와 물의 공급 등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샘과 같다. 이들의 삶의 고난과 이야기는 오로지 예수님만이 아신다고 믿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파안 전도처는 다른 4개의 교회와는 다르게 성경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다. 현재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산 꼭대기에 교회터를 구입하였다. 하지만, ‘파안 느아’⁶¹ 북쪽 파안마을 무당이 자신들의 마을과 땅이 겹쳐 있다는 핑계로 땅에 삽질 한 번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4 년 12 월 베들레헴 시찰회는 파안 전도처 교회 건축부지에서 6 개교회 연합 크리스마스 예배와 축제를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파안 느아’ 마을에서 4 명의 신자들이 결단을 하게 되었다. 이들 역시 마을에서는 살 수 없는 상황이며 이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인은 파안 전도처에 예배 참석만 하고 있으며 성경통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말씀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담당 교역자와 함께 성경통독을 하고 있으며 교회의 건축이 완공이 되어지면 온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보며 성경통독을 할 계획이다.

<사진 8> 파안전도처 교인들과의 성경통독 후 기도모임



⁶¹ ^{พื้นที่} ‘느아’ 는 태국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다.

<사진 9> 파안전도처 교회건축부지



베들레헴 시찰 86 개의 교회와 전도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이다. 특별히 본인은 위에 언급한 5 개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본인은 5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말씀을 읽고 살아가면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닌 아픔과 고통 고난도 있음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본인들의 삶에 있어서 고난과 문제가 현재를 살고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닌 믿음의 선배들 역시 동일한 문제들로 씨름하고 그 해답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을 깨달아 본인은 5 개의 교회가 성경을 묵상하며 말하며 들으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카렌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베들레헴 시찰과 공공신학

공공신학은 신학이 교회 내부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와 소통하며 공익을 위한 역할을 해야한다. 큰 의미에서 본다면 기독교 신앙이 정의, 평화, 인권, 환경, 경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태국은 지난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로 경제, 사회, 종교 등 여러 곳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동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노력과 봉사는 개신교 보다는 불교와 불교사찰 그리고, 불교인들이 가장 많았음을 고백한다.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그리고, 큰 사찰에서 만든 각종 보급물품을 본인 역시 받았다. 주변 교회에서 만들거나 도움을 주는 경우는 없었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들을 위한 행동은 미비했다.

치앙마이시의 경우 시 중심부의 행정구역은 농업과 경공업에 의한 의존보다는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이 높기에 지역의 호텔들과 식당,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노천 시장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받아 3년간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이와 더불어 교회역시 정부의 집합금지명령과 저녁 통금령으로 교회에서의 예배와 모임등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가운데 더 큰 어려움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장애인과 다른 지역에서 온 소수민족 학생들의 기숙사, 고아원 학생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이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먹는것과 입는것 그리고, 의료적인 혜택을 먼저 받아야 하지만 가장 늦게 받는 상황이 이어졌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 계속이어졌다.

교회는 이러한 부분에 책임을 통감하며 신앙을 공적인 영역에서 실천을 했어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불교가 큰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보아왔다. 기독교를 통한 공동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코로나가 끝난

현재 교회는 미얀마 선교(난민)를 시작하고 있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받은 지역 교회를 돕고 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비 크리스천에게는 아직 이 도움이 원활하게 가지 못하고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수민족의 교회는 외부로 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⁶² 또한 일반적인 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기독교는 선교사로부터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종교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베들레헴 시찰에 속한 85 개의 교회들 역시 자신들의 마을에서 고립이 되었고 마을의 이동과 농산물의 유통 등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다. 이것은 크리스천 들만이 아닌 불교와 무교 그리고 귀신을 섬기는 전통신앙을 갖고 있었던 카렌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가왔던 아픔이었다. 이 아픔을 어느 종교단체도 쉽게 해결해 주지 못하였음을 고백한다. 또한 이 기간동안 의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여 사망한 교회의 사모, 성도들이 많았다.

성경의 기록에는 약자를 돕고자 하는 이스라엘인들의 행동과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은 자신의 친구가 누구인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할 때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더 나아가 문둥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행동으로 옮기셨다. 즉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힘이없는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라 말하셨다. 예수님은 공공선의 기준이 명확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사람들에게 연결을 시키고자 노력하셨다. 본인은 성경통독을 하며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다.

⁶² 매사리양군 국경 검문소 경찰과의 대화 2024 년 8 월 7 일 한국 단기선교팀과 함께 선교일정 도중 대화를 하게되었음.

베들레헴 시찰의 교회들은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는 마을에 거주하거나 같은 카렌족에게는 가장 좋은 이웃이며 친구가 되어도 그들의 카렌 공동체 밖의 삶에 있어서는 큰 관심이 없다. 어쩌면 소수민족 교회가 공공신학의 영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공선을 자신들만의 부족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불교가 전하고 있는 공공선이 태국의 사람들에게 더 가깝게 와 닿고 있는 것 같다. 공동선은 하나님, 나 이웃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나와 하나님만으로 단축을 시키는 카렌의 현실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완성되어질 수 없다. 영적인 공동선과 사회적인 공동선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본인은 베들레헴 시찰 5 교회를 넘어 모든 교회들이 ‘통(通)’을 기반으로 한 성경통독만이 성경안에 나와있는 공동선을 이해하며 먼저 삶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실천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5 개 교회에 필요한 성경통독 방법론

본인은 맥켄 한센 병원(Mckean Senior Center & Hospital) 원목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원목 사역을 하며 주로 만나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60 세 이상이다. 그리고, 일반인이 아닌 고령의 환자와 손으로 글을 쓰거나 책 한장 넘기기가 어려운 음성 한센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들과의 예배의 설교와 성경에 대한 주제는 간결하고 짧게 5 분 이상을 넘기면 지루해 하거나 휠체어와 병원 침대에서 잠이든다. 처음에는 집중하여 듣고있지만 눈이 감기는 상황이다. 본인은 이러한 과정을 2016 년부터 경험해왔기 때문에 늘 마음 한 편으로는 한국에서 경험해보았던 성경공부와 성경을 함께 읽는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가운데

조병호 박사가 집필한 ‘성경통독’과 ‘365 일성경통독’ 교재로 먼저 읽게 되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Drew 대학원 목회학 박사 과정을 시작하며 조병호 박사와의 만남과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하여 베들레헴 시찰회 5개 교회를 시작으로 성경통독을 실시하겠다는 작은 꿈을 꾸게 되었다. 조병호는 성경에 대한 다섯가지 생각을 말하였다. 첫째, 성경은 얇은 책이다. 성경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사향과 진리를 담은 책의 두께 치고는 무척 얇기 때문에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야 한다. 둘째,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문자로 담아낸 책이다. 그래서 문자로 읽고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말씀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다. 셋째, 성경은 1년 10번 들을 책이다. 성경을 들으면 들을 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0번은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 넷째,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 성경은 온 세상을 담고 있으며 각 시대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그 흐름에 따라 통(通)으로 읽어야 한다. 또한 통시적(diachronic), 공시적(synchronic) 성경 읽기를 통(通)으로, 서양의 분석적, 동양의 직관적 해석을 통(通)으로 살펴 성경을 정격적이며 동시에 심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다섯째, 성경은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담은 책이기에 성경은 2,000여 년 시간, 1,500여 공간, 5,000여 인간을 통(通)으로 그리고 한 개인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해 주신 내용부터 가정, 그리고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신 이야기까지 통(通)으로 읽어야 함을 말한다.⁶³ 또한 그의 에필로그 글의

⁶³ 조병호, *성경통독* 2019, 23.

상황이 현재 나의 상황과 비슷함을 느꼈기에 베들레헴 시찰회의 5 교회에 필요한 것은 부분이 아닌 성경통독을 통한 변화만이 최선의 길임을 꿈꾸게 되었다.

베들레헴 시찰 5 개의 교회는 고립되어진 지역, 부족으로는 카렌족이라는 특징과 40% 이상이 카렌어와 태국어 읽을 줄 모른다는 것, 태국어가 원활하지 않기에 다시 카렌어로 통역을 해야하며, 긴 시간 앉아있는 것을 어려워 하지는 않지만 딱딱한 주제보다는 재미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설명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도들은 성경을 전통적인 배열 순서로만 알고있기에 이 것을 역사적 사건의 순서대로 설명을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었다.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하면 사건의 흐름과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 성경통독 교재를 토대로 처음부터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지만 매주 한 교회를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1년간은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나눌 수 있음을 말하였고 창세기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하였다. 한국교회는 1년에 성경 전체를 한 번 완독하는 방법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현지 사정상 1년에 성경 전체를 완독하는 것은 불가능 하였기에 주로 젊은 카렌의 청년들에게 함께 하기를 독려하였다. 또한 이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고대 근동의 역사와 성경의 사건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현재 본인은 5 교회 목회자들에게 매주 예배 후에 함께 성경통독을 해야함을 강조하였고 빠르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닌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를 주문하였다. 5 개 교회를 동시에 전부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먼저 읽거나 아니면 먼저 설명을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 성경말씀을 읽는 방법을 실행중에 있다.

베들레헴 시찰 5 개의 교회는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을 습관적으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성경을 종교적인 텍스트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서로 이해되며 그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베들레헴 시찰
5 개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

제 VI 장

결론 및 제언

요약 및 평가

지금까지 베들레헴 시찰교회를 중심으로 한 공공신학적 성경통독 방법론 연구의 실행과정을 살펴보았다.

1 장 서론에서는 베들레헴 시찰회가 이웃을 위한 공동선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과 통(通)을 기반으로 한 성경통독이 베들레헴 시찰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방법임을 제안하였다.

2 장에서는 공공신학의 신학적 근거와 정의를 다루며 세상안 교회의 공공성과 공공신학의 목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서안에서의 공공신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3 장에서는 베들레헴 시찰회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상위에 있는 태국 기독교단(CCT)을 설명하며 포 카렌의 배경과 베들레헴 시찰회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소수민족으로 일반 태국인들의 문화와 다르지만 행정적으로는 태국 시민권자이며 베들레헴 시찰의 상위 기관이 태국 기독교단(CCT)안에 속한 19 노회 이기에 이에대한 설명과 이해가 중요함을 알기에 설명을 하였다

4 장에서는 성경통독의 성서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성경통독의 요소를 살펴보았으며 베들레헴 시찰교회 안에서 필요한 성경통독을 제안하였다. 성경통독은 통(通)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성경의 순서가 아닌 역사적 시대적 순서대로 읽고 말하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였다.

5 장에서는 베들레헴 시찰 5 개교회를 설명하였고 이 시찰회에 필요한 공동선과 그 공동선을 실천하기 위한 성경통독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부분적인 성경읽기와 말씀공부가 전부가 아닌 성경을 통(通)으로 보아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인은 베들레헴 시찰회 5 교회가 공동선을 실천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공동선을 이해하고 자신들이 속한 태국의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성경통독이다. 성경말씀을 함께 읽고 말하면 시간과 공간과 사람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 또한 본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갖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포 카렌족에게는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보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간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고 싶다. 베들레헴 시찰회 5 교회는 부분만을 읽어나가고 있지만 성경통독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마을 공동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결론

매 달 세번의 주일은 5 교회 방문 순서를 정하여 준비하여 방문을 하고있다. 치앙마이에서 차로 가깝게는 3 시간 반 멀게는 하루를 자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여정이다. 지난 5 년간 매달 가는 마을이고 사용하는 길 이지만 육체적인 힘듦이 크다. 하지만, 영적인 행복감은 피곤함의 배가된다.

365 일 성경통(通)독 교재를 먼저 읽고 이해하고 태국어로 말하고 다시 카렌어로 번역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본인의 마음에 내가 당신들보다 더 성경을 알고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교만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성경을 먼저 읽고 조금씩 깨닫게 됨에 따라 입으로는 회개가 나왔고 무지한 나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였고 사랑하는 카렌의 형제 자매들에겐 교만으로 얼룩진 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컸다.

지난 1년간 카렌 성도들과 만나며 예배의 자리, 식탁의 자리 그리고, 삶을 나누는 자리를 함께하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성경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이 깨달아 변화되는 것임을 알게되었다. 하지만, 목회자들 역시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함에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였다.

성경을 함께 읽고 말하며 이들에게 공동선의 필요함을 느꼈고 그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라 믿게 되었다. 본인은 베들레헬 시찰회 5개 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부흥하기 보다는 이웃을 더 사랑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성경의 본질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외국어 서적

Alex G. Smith, *Strategy to multiply Rural Churches* Bangkok Thailand OMF, 1977

A. G. Smith, *Siamese Gold: A History of Church Growth in Thailand*, Kanok Bannasan(OMF Publishers), Bangkok, Thailand, 1982.

H. R. Swanson, *Khrischak Muang Nua: A Study in Northern Thai Church History*, Chuan Printing Press, Bangkok Thailand, 1984.

P. Pongudom, *The History of the Church of Christ in Thailand*, Chuanphim Publisher, Bangkok, Thailand, 1984.

번역 서적

Alan J. Roxburgh, Fred Romanuk/전석재 옮김.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 21세기 성장하는 교회 세우기』. 서울: CLC, 2018.

Werner Forster, *From the Exile to Christ*/문희석 옮김. 『신구약 중간사』. 서울: 컨콜디아사, 1985.

Rovert H.Stein/명종남 옮김. 『예수의 비유』. 서울: 새순출판사, 1988.

한국어 서적

김순일, 『한국 선교사의 가는 길』. 서울:성광문화사, 1980.

김창환, 『공공신학과 교회』. 서울: 기독교서회, 2021.

송영목, 『하나님 나라 복음과 교회의 공공성』. 서울: SFC, 2020.

송용원, 『하나님의 공동선』. 서울: 성서유니온, 2021.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2.

조병호, 『쉬운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09.

조병호, 『통이다 렛츠 통』. 서울: 통독원, 2007.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16.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9.

최경환, 『공공신학의 눈으로 본 성경』. 서울: 지우, 2023.

논문, 잡지, 기타 간행물

S. H. Chung, “A Study on Church Planting Strategy of Korean Missions in Thailand,” D. Min. dissertation,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California, U. S. A., 1992.

손승호, The History of the Thai Mission of the Korean Church,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8.

태국 기독교단(CCT), 『태국 기독교단 교단본부헌당식 책자』 / Bangkok: CCT
Print, 2005.

송용원, 『프로테스탄트 공동선을 찾아서』. 장신논단 Vol. 49 No. 1, 2017.

최승근, 『태국에서의 동반자 선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3.

강경태, 『성경 통독이 성도의 설교 이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무학교회를
중심으로)』 2016.

김종명, 『태국 교회(선교)역사 인식을 토대로한 사역전략 수립의 방향 모색』. GP
선교부, 2009.

최창성, 『타이정치에 미친 불교의 영향』. (석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 대학)
1975.

김동학, 『남태(남부 태국) 한국 선교사의 선교 역사와 전망』. 2004

오인천, 『어린이 성경통독에 관한 목회적 연구』. 2018.

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 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๕๖๐(태국 헌법) 제 31 조

웹사이트

위키피디아. “역사.”

동부의 포 카렌족은 태국 서부와 미얀마의 카인 주(Kayin State) 에 살고, 서부의 포 카렌족은 미얀마의 에야워디 도(Ayeyarwady Region)에 산다.

https://en.wikipedia.org/wiki/Ayeyarwady_Region [2025. 1.5 최종접속]

미션타이. “태국선교역사”

<http://www.missionthailand.net/themissionthailand/thaimission11.htm>

[2025. 1. 30 최종접속]

태국기독교단 홈페이지. “태국기독교단 역사”

<http://www.cct.or.th/about.php> [2025. 2.5 최종접속]

조수아 프로젝트. “포 카렌 자료”

https://joshuaproject.net/people_groups/20333/TH [2025. 1. 20 최종접속]

크리스천투데이. “성경읽기 방법론”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8565> [2025. 1.20 최종접속]

유튜브 영상. “베들레헴 시찰”

<https://www.youtube.com/watch?v=hPp9u12D7Jo> [2025. 1.20 최종접속]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Jooyong Shin

Place and Date of Birth: Chungcheongbuk-do, South Korea, Jun 16, 1978

Parent's Names: Kyunghee Pae and Cheolsoo Shin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MyeongSeok HighSchool 380, Uam-ro, D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Feb, 1997
Hannam University 70, Hannam-ro, Daedeok-gu, Daejeon, Republic of Korea	B.A.	Aug 2004
Daejeon Theological University 41, Hannam-ro, Daeduk-ku, Daejeon, Republic of Korea	M.DIV	Feb 2014
School of Theological Interdisciotinary Studies. Hannam University 70, Hannam-ro, Daedeok-gu, Daejeon, Republic of Korea	TH.M	Feb 2017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H.M	Fall 2021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jooyong shin

Signature

Jooyong Shin

Oct 22, 2024